



時 計 塔

SIGETOP



2012년 4월 15일 발행

서울대학교醫科大學美洲同窓會 發行

제39권 2호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snucmaa@yahoo.com www.snucmaa.us

발행인: 文大鈺
편집인: 金炳哲

편집위원: 徐亮 盧在煜
李元澤 徐仁錫

자문위원: 盧鎔冕 李熙景
許善行

동기회와 함께 호흡하는 동창회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의대 동문 여러분!

도약하는 힘찬 새해를 다짐하며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던 일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4월에 접어들며 싱그러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펼쳐지는 하루하루가 복되고 즐거운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동문들의 성원으로 기대와 흥분 가운데 치러진 지난 1월의 Convention과 Cruise에는, 매년 참석하여 크게 후원해 주시며 그 옛날 미주 동창회 convention의 태동에 산파역할을 하신 강신호 명예회장님, 동창회 본부의 보조 외에도 개인적으로도 후원하시고 참석해 주신 박용현 동창회장님, 그리고 대한의학협회 김성덕 회장님, 전임 서울대 병원장으로 현재 대한병원협회 성삼철 회장님, 바쁜 일정에 Convention을 참여하고 후원해 주신 정희원 서울대 병원장님과, 또한 양정현 건국대 의료원장님, 박상철 가천의대 암센터 소장님, 백남신 이화의대 암센터 원장님 등 멀리 한국에서 참석하신 가족포함 사십 여명과, 이곳 미주에서는 가장 고령이신 1948년 졸업 한용현 선배님을 필두로 역대 회장님들을 비롯한 많은 동문들께서 Convention과 Cruise에 도합 가족 포함 삼백여명 이상이 참석하시어, 동기들 그리고 선후배 동문들과 어울려 마냥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때 새삼스럽게 동창회의 존재이유 내지는 동문들을 위한 동창회의 사명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똑 같은 시기에 학원내 특별행사 관계로 애석하게 참석하지 못하신다고 연락을 주신 이길녀 명예 회장님 그리고 이런 저런 피치 못할 사정, 특히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치 못한 많은 동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었으며 더 늦기 전에 서둘러 이런 기회가 자주 자주 마련되어야 하겠다고 통감하였습니다.

이후 수고 했다면 손을 굳게 잡고 흔들어드리는 수많은 선배님들, 또한 행사 기간 중 수고에 감사한다며 자랑스러운 미주 동창회를 위하여 정성 어린 큰 후원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훌쩍 적신 멀리 한국에서 달려 온 우리 동기 박영배/박병희 교수 부부 동문 외에도 가족 포함 전체 60 여명의 자랑스러운 국내의 '73동기 가족들의 후원과 헌신적인 참여 등을 지켜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서인석/권정덕 convention chairs, 강유구/한승신 scientific chairs, Mrs. 석창호 Non-CME chair, 김재석 Local convention chair, 흥

겨운 사회로 행사를 빛내준 백승원 부회장, 심인보 재무, Mrs. 곽승용 Fashion show manager, 권오기 총무를 비롯한 많은 임원들과 위원장들, 또한 처음이지만 능숙하고 자상하게 행사를 보좌한 동창회 사무실 office manager - Mrs. Jamie Kim의 수고에 다시한번 뜨거운 박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창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운데 동기회 모임이나 거의 다름없이 많이들 참석 하셔서 뜻 깊은 결실을 맺는데 큰 힘이 되어 주신 적지 않은 각 학년 동기들과 동기회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 자신, 똑 같은 course의 cruise를 세 번씩 경험하면서, 여행은 행선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그리고 어떻게 지냈느냐에 달려 있음을 다시 실감하는 좋은 기회이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 숫자가 많고 적든간에 동기회의 모임은 항상 깨가 쏟아지고 재미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가하면 이번의 Convention과 더불어 각 동기회의 참여를 목표로 준비한 Cruise처럼, 주어진 대부분의 시간을 어차피 동기들끼리 함께 즐기면서도 더불어 때때로는 동기모임만으로 마련하기에는 박찬 크고 작은 다양한 program들을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동시에 진행되는 Scientific and non-CME sessions, Ballroom party, Cruise 자체의 program을 병합한 우리만의 일정 등) 모처럼 선후배 동문들과도 오랜만에 함께하는 일거양득의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면, 동창회의 구심점이 되는 모든 동기회의 모임을 한꺼번에 이런 모임으로 대체 해 볼지도 합니다. 시간이 가고 연륜이 흐를수록 다양하면서도 더욱 더 알차고 즐거운 서울의대인의 모임으로 조성되리라 믿습니다.

아직도 건재한 각 학년의 동기모임에 비해서 몇 군데를 제외하면 각 지부동창회의 현황은 Convention의 참여도나 회비납부율을 돕는 면에서 별다른 힘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Convention의 참여나 동창회비 납부도, 지부만이 아니라 동기회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이 지금처럼 각 지부나 Sigetop을 통한 독려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무릇 동창회에 오는 마음은 모름지기 나하고 같은 학년 동기들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 먼저 좌우되는 것임을 자타가 인정하는바 이며 또한 동기들의 모임에서는 스스로없이 꼭 그 학년의 체면을 생각해서라기 보다는 이왕이면 다 함께 모여 더 재미있는 모임이 되기 위하여서도 convention 참여나 회비납부를 권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것도 지부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현재 회비납부 숫자에 따라 주어지는 Revenue sharing을 지부대신 각 동기회로 전환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어쩌면 숫적으로 너무나 열악한 동기회에도 도움이 될 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더 많은 동기들이 함께 참여하면 할수록 나 같은 동기가 없어서 모임이 재미가 없었다는 얘기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듯 앞으로의 동창회의 방향은 각 동기회와의 긴밀한 유대협력관계, 그리고 회장단의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 마련된 알차고 짜임새 있는 동창회의 모임으로, 한국에서 열리는 아주 특별한 주기의 동기모임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따로 동기회를 할 필요가 없는 분위기로 이끌어 나갔으면 합니다.

만약 여건이 허락한다면 한국본부에서 처럼 동기회장, 지부회장, 이사회 및 임원들과 함께하는 Workshop을 마련하여 회무사항 전반을 토의하고 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공감과 책임의식을 고무하며 다짐하는 기회도 주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봅니다.

이미 우송원 별도의 편지로 아시다시피, 비록 동창회의 현황이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이긴 하지만, 이제 모든 동문들의 숙원이었던 새로운 주소록을, 가능한 발간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마지막 주소록에 있는 자료들을 지난 수 개월 동안 새로운 office manager의 끈질긴 노력으로 자세히 검토해 본 결과 예상대로 여러 가지면에서 크나큰 변동이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기에는 시급한 상황인지라 최선을 다 할 계획이오니 여러모로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필요 합니다.

새로운 주소록에 특기할 사항은, 동문들의 자녀들에 대한 의결 사항입니다. 동문 자녀들 모두를 포함시키는데는 다른 의견도 없지 않아, 부분적으로 의대 동창회니만큼 의사되는 자녀들만이라도 먼저 포함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섭렵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Orlando Convention 중 참석하신 모든 동문들이 초대된 Business Meeting에서 이 안건을 상정한 결과 거의 만장일치로 많은 동문들께서 Medical Doctor (MD/DO)로 일하는 동문들의 자녀에 대한 정보를 함께 수록하기를 원 하셨습니다. 물론 voluntary 이고 또한 필요이상의 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어지는 비교적 제한된 한도 내에서의 정보입니다.

근본 취지는 동창 되는 부모님들의 학연을 통해서 연결되는 고리로 결집된 Network 형식으로 그들 상호간에 귀중한 connection을 통하여 도움을 주

회장 문대 옥(73)

고발하는 일은 물론 나아가서 우리 동창회 전체의 활동이나 모임, 한국의 모교 내지는 의학계, 그리고 미주 동문들 각자에게도 직접 간접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지속적으로 주고받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창회의 운영은 일차적으로 동문 여러분의 회비에 달려 있습니다. 결코 예전 같지않은 상황가운데서 꾸준히 동창회를 사랑하고 배려하시는 마음으로 즐겨 후원을 해주시는 고마우신 동문들도 계시긴 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동문 모두가, 나 하나쯤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모교와 동창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회비를 납부해 주셔서 안정된 재원이 확보될 수만 있다면, 지금처럼 소수의 동문들의 donation이 중요한 변수가 되는, 날로 힘겨워지는 재정운동을 탈피할 수 있으리라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Convention의 참가비도 더욱 더 낮추거나 연령에 따라 아예 삭감 조정할 수 있을 뿐더러 어쩌면 donation에 따른 심리적인 부담도 덜어 더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신장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나아가서는 안정된 재정상황은 향후 새로운 회장단을 선출하는데도, 특히 앞으로 어쩌면 더 거슬러 올라가서, 선배님들 심지어는 은퇴하신 동문들께서도 포함된 회장단이 구성될 때 우선 재정적인 부담만이라도 덜어 줄 수 있다면 회장단의 발걸음이 한결 수월해 지리라 믿습니다.

한편 아직 확정된 바도 아니고 우리 중 누구도 원하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불가불 회비를 내신 동문에 한해서만 Directory를 보내야 할지도 모르는 형편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너그럽게 양지하시고 기꺼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6월 대의원 회의는 가능하면 서부와 동부를 잇는 screen을 통한 영상회의를 구상하여 그 동안 거리관계상 일체감의 부재로 비교적 단절된 상호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특히 능력있고 의욕에 찬 차기 회장단이 LA에서 일할때에도 능률적인 동창회의 운영을 차질없이 지속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동창회의 형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렇듯 아직도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강이 우리 앞에 펼쳐있는 시점에서 동창회가 나가야 할 길, 동창회의 비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상황 변화에 따른 새로운 방향 설정에 대한 바른 인식과 서울의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내실을 기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항상 동문 여러분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1-2012 제1차 대의원회 초록

일 시: 2012년 1월 20일 (금) 오후 4시
 장 소: Hyatt Regency Grand Cypress, One Grand Cypress Blvd Orlando, FL
 참석자: 정구영(57) 이만택(58) 김병석(59) 채규철(59) 전희근(60) 추재욱(63) 한기현(63) 허선행(64) 이웅만(64) 권정덕(64) 최영자(66) 서윤석(68) 인정길(70) 강유구(71) 강창홍(71) 김일영(71) 광승용(71) 김재석(72) 석창호(72) 문대욱(73) 서인석(73) 한승신(76) 권오기(78) 백승원(79) 심인보(83) 이영인(86)
 Proxy: 노용면(55) 최종진(59) 이한수(61) 여천기(62) 손영진(62) 김태웅(63) 김택수(63) 정길화(65) 이명희(66) 최순채(66) 한영수(67) 최승용(67) 김병오(69) 엄규동(69) 조영갑(70) 오동환(71) 김유식(71) 박진국(71) 조세진(71) 김성환(71) 정인용(71) 오용호(72) 고용규(73) 김원정(75) 김동훈(77) 박일우(77) 장연용(78) 전원일(83) 조형기(92)

1. 성원 점검 후 오후 4시 회장의 개회선언.
2. 문대욱 회장의 사회로 지난 대의원회 초록을 수정 없이 동의와 제청으로 통과함.
3. President 보고 (문대욱 회장)
 Meeting에 참석한 대의원, 그리고 이번 Orlando, Florida convention을 위하여 성심껏 준비한 임원, 동문들에 감사드립니다.
4. Committee Report
 - Charity committee (최영자 위원장)
 Total pledge \$33,050.00 중 현재 \$21,350.00이 모금됨.
 Charity 기금의 사용기준은 위원회 member 구성이 이루어진 다음 상의 결정하기로 함. 가능하면 우리 동문들이 관여하는 charity group이나 선교단체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도 고려하기로 건의함.
 - Publication committee (김병석 위원장)
 시계탑이 quarterly로 발간 되고 있으며 질적인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원고 부족이 항상 문제가 됨.
 이번 후로리다 컨벤션에서 "Round table discussion of past and present presidents of SNUCMAA" 이 열릴 예정임.

- Alumni Book Writers forum을 처음으로 열어서, 컨벤션 당시 소개할 예정임. 최영자 Charty 위원장이 예산 절감의 목적으로 시계탑을 on-line으로 바꿀것을 건의함.
- Scientific committee (강유구/한승신 위원장)
 2012 convention의 theme을 Geriatric medicine or Medicine for Aging population 으로 정함. 다양한 학년의 연사들로 구성되었음: 6명 (57-69 graduates), 10명 (71-76 graduate), 3명 (81-85 graduates), 2명 (99-01). 특별히 3명의 동문 자녀와 7명의 멀리 한국으로 부터 기꺼이 와주시는 연사들께 감사드립니다. 각 Session 마다 특별히 Panel discussion을 마련하였음. Thomas Jefferson University를 통하여 CME를 얻었음. 경비는 \$3,000 이고 on-line으로 credit를 얻을 수 있음.
- Green project (이영인 위원장)
 8명의 in training 후배 동문부부를 convention에 초대하여 한 동문가족당 \$1500까지 보조할 예정임. Fund는 14대(85-86) 동창회 회장이셨던 고 박준홍(51) 선배님의 가족의 \$10,000 donation 덕분에 이 project가 가능했음. Green project에 more fund가 필요함.
- Research and Membership committee (조세진 위원장: 서면 보고)
 함춘학술상 후보로 최인섭 동문(72)을 선출하고 문대욱 회장의 인준을 받아 총동창회에 추천한 결과 최고 영예인 동아대상을 차지해서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연례 만찬회에서 시상 받은 후 미주동창회에 \$5,000 기증함에 감사드립니다. 김기태 동문을 다가오는 함춘 대상후보로 추천함.
- Scholarship fund management committee (이명희 위원장)
 2012년 1월 13일 현재 잔고는 \$412,185.00임.
 - Scholarship committee (서인석 위원장)
 SNU foundation과의 overlapping과 conflict로, scholarship이 SNU로 shift 될 가능성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 현 미주 서울대 재단이사장 이만택 선생님과도 상의할 예정. 고 박준홍(51) 동문 가족께서 donation 하신 \$10,000은 유지를 받들어 트레이닝 중 레지던트를 위해 쓸 예정임.
- Convention chair Dr. 권정덕/ Dr. 서인석 위원장의 인사말씀이 있었음.
- 5. New Business
 - Member Directory update
 마지막 주소록은 2006년에 발간되었음. 새로운 주소록이 가능하면 입기내에 발간되도록 노력하겠음.
 - 문대욱 회장의 감사와 격려의 말을 끝으로 6시에 폐회함.
 기록: 총무 권오기(78)

2011-2012 제2차 이사회 초록



일 시: 2012년 3월 24일 (토)
 장 소: 풍림식당, Fort Lee, New Jersey
 참석자: 노용면(55) 이만택(58) 김병석(59) 한기현(63) 추재욱(63) 최순채(66) 최영자(66) 광승용(71) 강창홍(71) 강유구(71) 오용호(72) 문대욱(73) 서인석(73) 백승원(79) 심인보(83) 이영인(86)
 Proxy: 김태웅(63) 김택수(63) 조동준(64) 허선행(64) 최준희(64) 이명희(66) 한영수(67) 김병오(69) 엄규동(69) 조영갑(70) 김일영(71) 조세진(71) 김성환(71) 오동환(71) 김유식(71) 박진국(71) 김재석(72) 나두섭(73) 한승신(76) 박일우(77) 김동훈(77) 조경구(78) 권오기(78) 조형기(92) Mrs. 석창호(72)
 Guests: 강대희(87) 학장, 김한석 교수, 이승공(69), 박성철(99)

1. 성원 점검 후 오후 6시 회장의 개회선언 (16 참석자와 24-Proxy, 1명-resign 나두섭, 7명 결직)
2. 2011-2012 제1차 이사회 초록을 수정 없이 동의와 제청을 통해 만장일치로 통과함.
3. 문대욱 회장의 진행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강대희 학장과 International Affairs의 김한석 교수를 소개함. 강대희 학장이 power point presentation를 통해 서울의대연혁, 학장 취임식 및 국제교류를 포함한 여러가지 사업 등을 소개함.
4. Committee Chairs Report
 - Scientific Committee (강유구 / 한승신 위원장): 강유구 위원장 보고
 일반적으로 여름에 하던 학술대회가 이번에는 1월에 조금 일찍 했고, 주제는 Geriatric Medicine으로 24명의 연사를 모시고 진행이 되었음. 각 분야에서 4명 정도로 모였고, 젊은 층의 연사를 초대하려 노력 했음. 1980년 이후의 졸업이 이중 8명이었고, 2nd generation 연사도 3명이 초청되었음.
 CME credit은 on-line application을 통하여 course evaluation을 거쳐 certificate을 받게됨. 이미 44명의 certificate이 발급 되었으며, 도움이 필요한 회원은 강유구 Scientific committee chair에게로 연락을 취하기를 촉구함.
 - 2012 Convention Committee (서인석 / 권정덕 위원장): 서인석 위원장 보고
 모든 support에 감사를 하고, 특히 강유구 scientific committee 위원장의 노고에 special 감사를 표시함. 참석자는 미주에서 99명 그리고 한국에서 21명의 회원이 참석을 함으로 전체 240명 임.
 고 박준홍 선생님의 special fund로 8명의 resident와 그 가족이 초대 되었고,

-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많은 젊은 동문의 동창회 참여가 있기를 기대함.
- 이번 convention에서는 역대 회장의 panel discussion이 있었고, 구정 기념으로 준비된 점심을 나누며 전 회원의 참석한 General business meeting을 가졌음.
- 이 외에 book author forum이 있었으나, 이 event의 성공을 위해서는 더 많은 플랜과 참여가 요망됨.
- Scholarship (서인석 위원장)
 현재에 있는 장학금은 서울의대 장학금과 송관호 장학금, 김태웅 장학금으로, 대략 50명 정도의 applicant에서 선별하여 장학금이 지급 되고 있음. 이 메일을 통해 8명의 위원들의 추천을 거쳐 송관호 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로 2명이 선출되었고, 김태웅 장학금은 경제적 도움의 정도와 학점의 우수성을 보고 2명이 선출되었고 서울의대 장학금은 5명을 선출하였고 만장일치로 전원 확정됨.
- Treasurer report(심인보 재무):
 Income은 정리가 update 끝났으나, expense는 약간의 시간이 더 요구됨.
- Fund Raising (추재욱 위원장) refer to written report & Donation receipt list
- Fund Management Committee report (이명희 위원장)
 Fund Manager, John 백의 간략한 presentation이 있었음. 13년 간의 순이익을 보면 average 6.13%를 유지하고, 일 년에 3, 4번에 걸친 주식 판매를 이명희 fund management committee 위원장과 하고 있음.
- Silver Project(한기현 위원장)
 5월로 잡힌 Baltic countries의 여행의 참여도가 낮아서 더 많은 참석자의 필요성을 강조 하였음.
- Publication Committee (김병석 위원장 보고)
 편집모임은 quarterly 만나고 있으며, 이번 편집모임에서는 시계탑에 대한 의논이 있었음. 시계탑의 존재가 아직 중요하다는 것이 중론이었고, 비용절감의 방책으로 12면 발행을 기본으로 정했음. 비용절감의 방책 중, 서울로 보내는 시계탑의 부수 조정과 서울대학교 동창회 한 곳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음. Office Manager가 서울대학교 동창회와 연락후 보고하기로 함.
 시계탑 원고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전문 편집인을 모시기로 하였고, 더 많은 원고의 참여로 어느 한 방면에 치우치지 않는 시계탑으로 되기를 희망함. 각 원고의 길이 또한 한 면이하로 조정하도록 권장하기로 함.
- By Law (노용면 위원장): 보고사항 없음
- Advisory & Exchange (이만택 위원장): 보고사항 없음
- Research & fellowship (조세진 위원장): 서면보고
- Office Management Committee(OMC)-(광승용 위원장): 보고사항 없음
- Green Project (이영인 위원장)
 현재 각 도시를 다니며 젊은 동문을 만나고 있음, 이미 8개의 도시를 다녀왔고, 20명을 넘는 젊은 동문을 만날 기회가 있었음. Face to face 만남으로 동창회의 장래를 위한 network의 형성이 주목적임. 현재 미주 대학 및 국외 대학의 졸업생 matching이 되는 비율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었음. 2012년에 우리 졸업생중 5명이 matching 있었다는 기쁜 소식을 보고드립니다.
- Charity Committee (최영자 위원장)
 지난 이사회로부터 Standing committee가 된 점을 다시 감사하며, 그 동안 fund raising에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였음. Committee member 결정은 CA 1명, MI 1명, VA 1명 그리고 위원장 등 총 4명으로 구성이 되었음. Charity committee mission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나오면 이사회에 보고하고 approval을 거치겠음. Charity committee의 theme는 The most needed without borders라고 하였다.
- Non-CME session (Mrs. 석창호 위원장): 서면 보고
- 5. New Business
 - Revenue Sharing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서 랑(69, 대뉴욕)

당신은 중세기에 걸쳐 일본을 주름잡던, 참을 인자에 능 자, '닌자(ninja:忍者)'라는 비밀단체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는가. 새까만 옷에 복면을 하고 지붕이며 나무를 훌쩍훌쩍 뛰어넘는 첩보대 요원들이 신출귀몰하게 자객행위를 하는 영화를 유심히 본 적이 있는가.

병상일지를 쓸 때 수도 없이 'patient: 환자'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글자의 원 뜻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근래에 미국 정신과 분야에서 환자를 'client: 의뢰인' 혹은 'customer: 고객'이라 부르자는 의견이 분분하다. 참을성이 없는 양키들이 참는다는 뜻이 담긴 'patient'라는 호칭을 되도록 피하려 한다. 그나저나 닌자와 환자의 뜻이 같다는 점이 좀 우스꽝스럽다.

육원에 환자(患者)의 '환'자는 '근심, 걱정'이라 나와있다. 이것은 즉 마음 속에 근심과 걱정이 심한 사람들이 육체적인 병을 일으킨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한다.

라틴어에서 14세기 초부터 쓰이기 시작한 'patient'의 전신인 'patientem'은 '불평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뜻이었다. 그러나 14세기 말에 고대 불어로 'pacient'는 어느새 인칭대명사로 둔갑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변천했다.

그것이 지금부터 한 800여 년 전 유럽의 풍조였다. 같은 상황을 두고 로마인들은 고통을 '참고 견디는' 점에 역점을 두었고 프랑스인들은 고통을 '당하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불현듯 생각에 잠기게 한다. 역경을 극복하려는 로마인들의 자세와 역경을 당한 희생자로서 자칭 남들의 연민과 동정심을 자극하며 신세타령에 매달리는 프랑스 사람들의 심리상태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스스로 어떤 상황을 극복하느니 보다 남의 힘을 빌

리고 싶다. 자력이 아닌 타력에 의존하는 방식도 역경을 타개하는 일환이 될 수 있거늘 하다 못해 삼국통일을 이룬 신라의 김유신도 당나라 소정방의 힘을 빌리지 않았던가. 남의 힘을 빌린다는 말은 급할 때 신용카드를 쓰는 것과 진배없다. 신용카드로 빌린 돈은 나중에 두고두고 높은 이자율로 갚아야 한다. 그래서 김유신 이후로 우리 선조들은 중국인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거액의 이자를 지불해야 했던 것인가.

내 비록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참을성을 권장하는 정신과의사로서 성경을 인용하고자 한다. 그것은 즉 예수의 동생 야고보(James)가 당시의 해외 거주 유대인들에게 쓴 서한으로 해석되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중략)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는 구절이다. 은퐁 목에 힘을 짝 빼고 알기 쉽게 말하자면, 이것은 역경을 참고 견디면 시쳇말로 대박이 터질 수 있다는 훌륭한 지혜로 풀이된다.

'patient'와 같은 말 뿌리로 'passion'이라는 드라마틱한 단어가 12세기에 있었다. 고대 불어로도 이미 스펠링 하나 틀리지 않고 'passion'이라 표기했다. 이 말은 워낙 전인도 유럽어로 '상처를 준다'는 의미였다.

'passion'이 '정열'이라는 뜻으로 변하기까지는 근 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17세기였다. 다시 말해서 시험을 참아내는 사태나 역경을 극복하는 로마인의 심리나 희생자의 청승맞은 입지를 굳힌 프랑스 사람들이나 김유신이 당나라라는 신용카드를 썼던 역사적 사실이 알고 보면 다 한통속이라는 해석을 내려도 무방하다.

16세기에 'passion'은 '성욕'이라는 뜻이었다. 정신과 의사 티를 내면서 굳이 프로이트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내게 상처를 준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듯싶다. 그만큼 우리들의 사랑은 서로를 아프게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http://blog.daum.net/stickpoet
(뉴욕중앙일보 2012년 3월 21일 서랑 컬럼 [잠망경]으로 게재)

그래도 보수는 아름답다

방준재(70, 대뉴욕)

엣그제 Y중위로 부터의 몇 장의 사진을 받았다.

40년 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3개월의 군사 기초훈련을 받은 후 첫 임지인 속초에서 찍은 사진들이었다. 내가 25세 때 이다.

동해 바다를 배경으로 어떤 사진은 군복을 착용한 채로, 어떤 때는 수영복 차림의 젊고 환한 얼굴들이 사진에 담겨 있다. 평화스럽다. 군복만 아니라면, 우리가 여름 되면 찾아가는 동해안의 풍경을 담고 있다.

Y 중위랑 같이 근무하던 부대는 일종의 창설 부대였다. 울진 삼척 지방의 간첩 침투사건 이후, 그 북방을 해안선을 따라 경계하기 위한 부대 이었다.

그 시절을 약간 거슬러 필자의 학창 시절을 잠깐 더듬어 보자.

6.25 사변 통에 다 불 타 버린 학교, 그래서 고향 집장에서 3부제 수업을 받아가며 해맑은 얼굴의 아이들이 그러듯 뛰어 놀고, 공부하고, 운동하다 6년 학업을 마친 후 십리 길 떨어져 있던 중학교 그렇게 탈 없이 재미있게, 그리고 지금도 아련히 기억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 3년의 세월을 보냈다.

고등학교에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4.19 혁명이 터졌다. 1960년 이다. 그 이후, 학내나 사회 전반 분위기는 어수선 했고, 혼란스러웠다. 그 이듬해 5.16 혁명이 터졌다. 많은 시민들이 "드디어 올 것이 왔다" 했다. 그리고 혁명의 분위기를 환영하고 있었다. 우리는 학교만 다녔다. 우리는 학생이었으니까.

어느 날, 내가 좋아 하던 국사 선생님이 마지막 수업을 하고 떠났다. "도둑질 빼고는 남자라면 다 해 보

라" 던 말을 남기고. 나는 그 선생님이 갑자기 왜 해고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깊은 내막을 내 어찌 알 수가 있었겠는가? 그러다가 몇 년 전, 이 곳 미국에서 한국 신문을 읽다가 나는 기겁을 했다. 그 선생님이, 내가 좋아 하던 그 선생님이, 지리산 빨치산 두목이라 잡는가?! 그리고 당시 토벌군 대장과 화해한다는 사진, 그리고 기사 내용은 우리가 그런 세태에 살았던가, 뒤늦게사 자각하는 계기는 주었다.

얘기가 좀 빗나갔지만, 대학은 남만이 넘치는 상아탑 생활이 아니었다. 날이면 날마다 대학로는 최루탄과 학생 시위와, 밀었다가 밀렸다가, 눈물 흘리며 다니는 시절이 시작이 된 것이다. 누군가의 말처럼 반체제 인사 3천명에 속하지 않아서 인지는 모르지만, 나날이 발전해 가는 조국상에 뿌듯함만 느끼며 살았다. 그리고 다음 해 미국으로 왔다.

왜 이런 얘기를 길게 늘어놓고 있는가? 미국에 와서도 내가 보수인가, 그런 것 생각 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언론에 나타나는 단어들 생각이 맞지 않았다. 제 2의 건국이라 하질 않나, 정의가 패배된 나라라 하질 않나, 나아가서 태어나질 말았어야 하는 나라라 하는 데 까지 이르는 데는 내가 28년 산 조국을, 그리고 내가 산 그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나타나고, 지금에 이르러 있다. 어찌 분통이 터지지 않겠는가? 한 번 물어 보자.

정치 사회 철학자가 아닌 나로서는 보수의 정의에 한계가 있지만, 한 마디로 온고지신, 곧 옛것을 아끼고, 또 연구하면 새 지식이나 경험을 차곡차곡 하나씩 하나씩 새 지평선을 열어가는 것이라 믿고 있다. 인간의 지혜를 너나 나나 한계가 있는 지라, 발전적 계승 속에 완성으로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닌가? 그 속에 꽃이 피고, 아름다움을 활짝 보여 주지 않겠는가? 바람이 세게 불면 꽃도 금방 지듯이, 차근차근 우리 한 번 걸어 가 보자.

서울대학교병원, 뉴욕 사무실 개소

미주지역 동포의 건강증진과 대한민국 의료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리고자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2월 27일 뉴욕오피스(전화: 646-937-3737)를 맨하탄 렉싱턴 예비뉴에 있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뉴욕지소 입주 건물에 개소했다.

의료국제화시대에 로스앤젤스 오피스 경험을 살려 미국 동부지역의 교두보로서 새롭게 문을 연 뉴욕오피스는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고객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운영하는 건강검진특회기관인 강남센터에 의뢰해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암 등 중증질환을 비롯하여 질병이 발견되면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치료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현지 병원과의 협진 등 네트워크를 구축해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성희모(채규철 동문 부인) 별세
서울의대 미주동창회 회장으로 봉사했던 채규철(59) 동문의 부인 성희모 여사가 지난 3월 28일 별세했다. 고인의 명복과 남은 가족들의 평안을 빕니다.

김용국(64) 동문 별세
지난 2월 10일, 의대 64년 졸업 동기 김용국(1939-2012) 동문이 하늘나라로 떠났다. 고인은 모범적 성가정을 이룬, Knights of Columbus 가톨릭 신자였다. 필라델피아 템플의대 정신과 교수를 역임하면서, 치매를 앓고 있는 영부인 하광옥 여사를 돌보아 왔는데 자신이 췌장암의 희생자가 되어 부인보다 먼저 천국행을 하고 말았다. 이 무슨 날벼락인가? 부인은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떠났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 수가 없으니 이것이 신의 자비인가, 하늘의 섭리인가? 그러나 살아 있는 우리는, 망자를 위해서 신의 자비를 간구하고, 유가족에게 은총을 내려 달라고 기도하며 슬픔을 달래고 있다.

영부인(Teresa)을 비롯하여 은진(Anna), 수진(Patricia), 혜진(Helen), 영진(Teresa) 네 자매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매달리니 눈물이 슬픔에 젖는다. 신은 죽지 않는다. 죽어 본 적이 없는 신은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는 있지만 행복한 죽음을 만들 수는 없다. 하늘의 뜻을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따르다가 먼저 간, 의로운 친구여, 신이 바흐를 감상하고 천사들이 모차르트를 즐기는 낙원에서 지상의 모든 고난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꼭 될 차례가 왔다. 내가 천국에 가면 20여 년 전에 친구들과 이미 약속한 천국 골프장을 함께 만들어 보자. 부디, 잘 가거라. - 두고 간 벗 오태희

새로운 주소록 발행 예정

2006년 주소록 발간 이후 새로 회원이 되신 젊은 동문들, 은퇴후 새로운 보급자리로 옮기신 동문들, 그외에도 많은 주소 변동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주소록에는 의료계에 진출한 이세들의 Information도 포함시켜 "범 서울의대" Network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방대한 동창회 사업을 위해, '십사일반' 여러 동문들의 아낌없는 협조가 절실합니다. 앞으로 적어도 5년 이상은 존속될 이 새로운 주소록에 기록되는 후원자 목록은 동창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선후배 동문들의 귀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 주소록 출판위원 및 회장단 일동

Check payable to "SNUCMAA of NA"
Send to : SNUCMAA OF NA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10월 13일 시작으로 우리 同期生の 金祝祭는 公式日程과, 전국을 답사하는 여행을 통해 우정을 다짐하고, 옛날을 다시 찾은 感銘을 가져다 주었지만 세월은 假借없어 곧 떠나야 되는 아쉬움을 자아냈고, 그래도 떠나기 전 우리가 자라면서 특히 思春期에 겪은 의미가 깊었던 '安保' 經驗으로 마음을 달랠수있을까싶어 이 일정을 擇했다.

10월 23일 오전 8시 Sunbee 호텔에서 출발, 하루 종일, 鐵原을 중심으로 한 관광 일정인데 16명 이외, 우리 뒷바라지 하기위해 趙日均 부부가 참여해줘 18명이 "하나투어" 관광버스에 실려, 沈英補의 안내, 인솔, 해설을 받아가며 출발했다.

하늘은 높고 공기는 맑으며 바람은 시원해서 소풍가기 알맞도록 주문한 날씨같았다.

金祝祭가 시작할날 13일부터 오늘까지 빈틈없는 일정이었던만 모두 元氣가 왕성, 조금도 지쳐 보이는 同期生이 없어 보이니 老益壯이 놀라웠다.

서울에서 鐵原까지는 100km 남짓, 서울을 빠지기전 지나가는 곳이, 苑南洞, 惠化洞, 明倫洞, 三仙桐, 敦岩洞 등이어서 半世紀 前에 지방에서 올라와 하숙하느라고 轉轉하던곳이어서 이름은 익숙하지만 알아볼 수 없이 변했다. 그때 즐겨 다니던 東都劇場- 휴바닥에서 앉아서 접촉한 눈부신 西洋俳優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지 오래됐고, 6.25가 나면서 서울시민이 처음 銃聲을 들은 미아리고개도 이름만 남아 있을뿐, 옛 흔적은 자취가 없지만 지난날을 抽想할수 있었음은 우리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일게다.

교통이 복잡해서 속도는 느렸지만 지난날을 회상하며 지나니 조금도 지루한지 모르게 여행할 수 있었다. 중간지점, 옛 38線자리에서 잠깐 휴식, 사진 찍고, 生理 조절하고, 日均, 英補 婦人께서 나눠주신 간식으로 배를 채우니 피곤한 줄을 모르게 月井里에 가까이 오니 옛 생각이 난 듯, 軍服務 시절 이 근처에서 지낸 경험을 몇이 주거나 받거나 나누니 거의 午正이 되어 땅굴에 도착하였다.

제2땅굴 가기 직전 軍哨所를 지나는데 우리 인도자가 우리 인적사항을 제출하는가본데, 쉽사리 통과가 된다. 지난날에는 초소병이 무장한채 차안에 들어와 노려보듯 하던 옛적, 가슴이 심찍할 정도로 森嚴하든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제 2 땅굴

1973년 11월 20일 6師團 兵士 두 명이 地下的 爆音을 듣고 上府에 보고하면서 그 존재가 확인됐다. 이 땅굴은, 鐵原 북쪽 13km 지점으로, 軍事分界線 남쪽 1.1Km까지 뻗어있었다. 그 크기는 높이, 2m, 폭이 2.1m, 길이 50-160m 규모이고, 軍人 16000명이 한 시간에 통과할 수 있다고 보고돼 있으니 (다른 보고에 의하면 30,000명이 1 시간에 통과)군사적으로 이용됐으면 그 파괴력이 놀랄만 하다. 땅굴에 들어갈 때는 모두 안전 헬멧을 쓰고 들어갔으며 허리를 조금 구부리니 運身하는데는 지장이 없었다. 이 周圍에서는 사진촬영이 금지된 것 이외에는 분위기는 이완되어 있어 어느 관광지나 다름이 없으니 와 불만한 곳이었다. 군데군데 안내 설명서가 있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입구에서 600m쯤 들어가니 광장이 있는데 이 곳이 北韓軍의 숙소, 휴식공간으로 이용됐을 장소이다.

이 장소를 파헤쳐 나르는 岩石, 흙 덩어리가 莫大할데인데 땅굴파기 초기에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미심쩍하기는 하지만 공식 확인일정은 75.2.25

鐵原 安保觀光을 다녀와서

61년 졸업 동기 여행

로 기록이 되어있다.

제1땅굴은 그전에 발견되어 以北의 意圖는 잘알려지지 않았는가 싶다. 제 3, 4 땅굴이 후에 발각되었는데, 以北이 얼마나 집요하게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했는지 짐작이 간다.



이곳이 관광지역으로 탈바꿈하리라고는 以北에서는 꿈에도 꾸지 못했을 터이니 自由를 즐길 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굴 안에는 습기가 있기는 해도 통풍 관리를 해서 잘 보전되어있고, 군데군데 친절하게 전등이 켜있는데도 있어 원래 用圖와는 다른 自由의 전시장인 듯 만하다. 이 땅굴의 원래 용도와 정반대의 목적으로 관광지처럼 이용되고 있으니 세상이 변함을 고마워해야 하겠다.

땅굴 다음으로 '철원 평화전망대'에 들려 비치된 망원경을 통해 非武將 地帶를 관찰했는데 半世紀以上 無人地境이었기에 Jungle같은 환경을 기대했는데 材木에 쓸만한 나무는 볼 수 없고, 작은 잡목만이 시야에 잡혀 실망스러웠다. 이런 곳에서는 큰 橋獸가 숨을만한 숲을 이루지 못하지 않나 싶다. 이곳의 地質이 박해서 大木이 자랄 수 없는지도 모르겠다.

멀리 以北의 '宣傳 마을'은 성냥갑 정도로 보이는데 이 정도로는 어린이도 속일 수 없을게다. 이 지역은 戰爭의 부산물이지만 특수한 조건을 갖춰 學界, 또는 環境界의 관심을 이끄는 곳이기도 하다.

두루미관



나에게는 아주 반가운 博物館이었으며 내 조국이 自然環境에도 유념할 여유가 있는 잘되어가는 증거이기도 했다. 우리를 안내, 설명해주는 아가씨도 씩씩했고 인상도 좋았다. 건물도 곡선이 많은, 흰색건물, 실내장치는 칸막이가 없이 한곳에서도 모두 볼 수 있어서 친근감이 들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도시에 흔하지 않은 현대적인 건물이다.

Peter Matthissen이 전 세계에 알려진 15種의 두루미를 修道者처럼 찾아다니는 歷征을 기록한 'The Birds of Heaven' (2001)을 출간, 두루미의 生態, 優雅, 勇氣를, 進化의 象徵의 意味를 알려줘 即時 同好人の 讚謝를 받았다.

그가 우리나라 鐵原지방에 와서 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를 관찰한 것

서 휴 열 (61, 버지니아)

도 책에 기록되어 있다.

미국같은 큰 나라에도 2종, Sandhill Crane, Whooping Crane 밖에 없는데 우리는 3종, 운이 좋으면 4종이 찾아오니 자랑스럽다.

계절이 일러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剝製된 두루미를 보며 하늘과 땅을 울리는 그 소리를 상상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 책의 前序를 인용하면,

"When we hear his call we hear no mere bird. We hear the trumpet in the orchestra of evolution. He is the symbol of our untamable past, of that incredible sweep of millennia which underlies and conditions the daily affairs of birds and men."

Aldo Leopold, "Marshland Elegy" 1937

두루미 외에도, 뜰복새, 부엉이, 기러기, 박새, 너구리, 멧돼지 등 이 지역에 서생하는 생물을 剝製, 展示해 불만하였다. 시간이 촉박해서 충분히 감상할 수 없어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 자리를 떠날 수 밖에 없었다.



白馬高地

白馬高地는 鐵原지방을 지날 때 피할 수 없는 이름, 기념지이다. 길 이름이 있고, 기념관이 있으며 지나는 곳마다 마치 우리를 초대하는 장소인데 우리는 시간이 촉박해서 들리지 못했지만 1952년을 겪은 우리로서는 잊을 수 없는 곳이다.

이곳은 철원평야와 서울을 연결하는 군사적 요충지일 뿐 아니라 여기서 생산하는 농산물은 우리나라의 중부지방을 먹여 살리는 곡창이어서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어서 南北이 목숨을 걸고 다투었던 地域이었다.

1952년 10월 16일 中共軍 4萬 餘, 軍團兵力이 동원, 투입되어 그 당시 395 高地로 알려진 이곳을 총공격, 10월 15일까지 10일간 24차례 주인이 바뀌는 血戰, 결국 우리 國軍이 中共軍을 격퇴, 休戰後 우리 땅으로 남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됐으니 정말 아슬아슬한 곳이 아닐 수 없다. 이곳을 지켰던 9師團이 白馬師團으로 이름이 지어졌고, 越南戰에도 참가해 'White horse division'으로 알려져 美軍, 越南戰史에 남아있음에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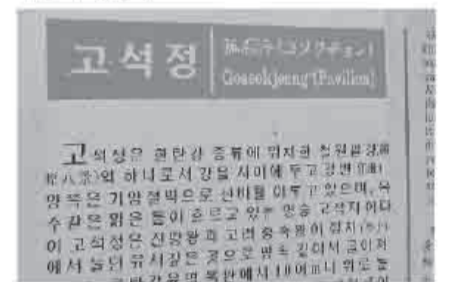
孤石亭

두루미관을 뒤로 두고 京元線의 중간지점인 月井里 驛舍에서, 暴擊으로 파괴된 객차 잔해가 그대로 남아있는 게 불거리었는데 새삼스레 나라가 두 동강이 났음을 想記해줘 이루지 못한 가능성을 안타깝게 한다.

이곳 다음 '鐵原郡勞動黨舍'는 이곳을 다니는 관광객은 꼭 들려가는 곳인가 본데 그 意圖는 알만하다.

이 고장의 名勝, 孤石亭을 보기위해서서 점심은 기다려야 했다. 이곳 말

에 의하면 新羅 眞平王때 10평 정도의 樓閣을 이곳에 지었다하며, 高麗 忠肅王이 놀이했다는 곳, 이제는 이곳 전체를 아울러 孤石亭이라고 하는데 어린이 놀이터, 잔디밭, '林巨正' 동상도 있어 잘 꾸며 놓았다. 漢灘江 가운데 자리여서 물, 화강암, 숲, 공터가 있어 가히 와서 시간을 보낼만한 곳이었다. 임꺽정이 官軍에 쫓겨 여기서 숨어 지냈다는 얘기는 洪明燾의 冊에는 쓰여 있지 않았다니 이곳 주민의 愛郷心의 소산이 아닌가 한다. 깨끗한 강물이 멀리서 招待하는 듯 했고, 風景이 좋아 사진 찍을게 많았지만 점심 시간이 훨씬 지났으니 많은 볼 것을 놔두고 길을 재촉, 鐵原市內 미리 예약한 음식점으로 갔다. 점심은 매운탕으로 통일해 주문했는데 그 맛이 일품이어서 지금도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어렸을 때, 물고기병을 들고 동네 냇물가에서 잡은 민물생선을 고추장에 풀어 국물을 만들어 먹던 그 맛, 나를 다시 5, 60년 전으로 이끌어 줬다.



胃와 味覺을 충족시켰으니 서울로 되돌아가는 일이 남았는데 여기서부터는 교통의 締症이 극심했지만 來日이 여유 있으니 뒀을 두려워하랴 싶다. 짧은 가을햇볕은 금새 저서 서울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아주 어두웠다. 계획에는 없었지만 떠나는 아쉬움을 이길 수 없어 다시 모두 저녁을 같이 하자는데 아무도 거역을 못한다.

이것으로 金祝祭의 공식행사는 마감했지만 서로 쉽게 헤어지지 못해 다음 기회를 約束하고 어둠속으로 서서히 제 갈길을 찾아갔다.

備考

1. 人名尊稱은 생략
2. The Birds of Heaven, "Travels with Cranes" by Peter Matthissen, 2001, North Point Press, Chapter seven; "The accidental Paradise"
3. "Naver" 검색에서 拔萃한 내용이 많음.
4. 이번 여행은 마치 沈英補가 앞에서 끌고, 洪慈善 女史가 뒤에서 밀고, 趙日均 夫婦가 옆에서 챙겨줘 쉽게 할 수 있었음.
5. red crowned crane = Grus Gensis = 두루미, White-naped Crane=Grus Vipio = 재두루미, Demoiselle Crane = Anthropoides virgo = 쇠재두루미, Common Crane = Grus grus = 검은목두루미, Hooded Crane = Grus monacha = 흑두루미
6. The sandhill commonly travels a mile above the earth and can soar higher, to at least 20,000 feet, not astonishing when one considers that the Eurasian and demoiselle cranes ascend to 3 miles above sea level traversing the Himalaya in their north and south migration between Siberia and Indian subcontinent.
7. messengers and harbingers of highest heaven.- longevity, good fortune, harmony and fidelity. Heaven-bound ancients depicted riding on a crane or assuming the crane's majestic form for their arrival in the clouds of immortality.
8. the large cranes, over 5 ft tall, 8 ft in wing span.
9. the horn notes of their voices, like clarion calls out of the farthest skies, summon our attention to our own swift passage of on this precious earth.

2012년 제29차 서울의대 동창회 학술대회 보고

학술위원장 강 유 구 (71, 필라델피아)

제29차 서울의대 동창회 학술대회는 Orlando, Florida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여러 분야에서 전 보다는 다른 형태를 보여 주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여름에 열렸던 학술대회를 1월로 옮겼는데, 그 목적은 여러 동창회 모임과 근접하게 함으로서 많은 동창회원님께서 참석을 하실 수 있고, 학술대회 직후에 가졌던 Western Caribbean Cruise를 통하여 좀 더 재미있고 친목을 도모하는 기회를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대회 기간은 하루 반으로 줄었지만 24 연사님들을 초청한 내용이 충실한 학술대회 이었습니다. 학술대회의 theme은 Medicine in Aging Population으로 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Geriatric medicine을 의학계에서 중요시 보고 있으며, 많은 동창회원님들의 연세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학술대회 운영 면에서는 저명한 연사들을 초빙하여 중요 장기 질환마다 집중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공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연사님들을 초청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서울과 인천에서 8분의 연사님이 오셨고, 16 연사님은 미국에서 전문직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대학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17명, 그리고 임상을 주로 하시는 7명의 연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동창회의 장래 발전을 위하여 젊은 연사님들을 초청하였습니다. 1980년 후에 졸업하신 연사가 8명 이었으며, 동창회원의 자제 분들이 3명 있었습니다.

CME Credit은 Thomas Jefferson University 에서 받도록 준비 되었으며 학술대회 직후에 on-line registration과 evaluation을 한 후 CME certificate (11 credits)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 강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술대회는 두뇌 질환에 관한 4 연사의 강의로 시작 되었습니다.

배성호 교수(71, Neurology, Thomas Jefferson University, Philadelphia, PA)는 노년기에 흔히 오는 두통을 설명 하시면서 다른 장기 질환에서 오는 이차적인 두통은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조기 발견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 하셨습니다.

Associate professor, James Lah (Neurology, Emory University, Atlanta, GA, son of John Soosup Lah, MD 1950)께서는 Alzheimer's disease 연구에 대가이신데 최근에 발견되고 있는 biochemical marker에 의해서 조기 진단과 치료가 될 날이 멀지 않다고 보고 하셨습니다.

한창규 교수 (82, Psychiatry,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PA)은 정신 분열증에 관한 기초 분야 연구를 하시는 데 NMDA receptor가 유전인자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 이 병이 발생되며 이 방면의 연구가 정신분열증 치료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보고 하셨습니다.

정희원 교수(75, Neurosurgery, CEO of SNUH)께서는 대학병원 운영에 바쁘신 중에도 학술대회에 참석 하셔서 대학병원의 발전 사항을 보고 하시면서 두뇌 종양의 외과적 치료법을 강의 하셨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임종식 교수(57, Potomac, MD)의 사회로 각종 외과 질환들이 보고 되었습니다.

백남선 교수 (73, Surgery, EHWA



Women University)께서는 유방암 절제와 성형수술을 동시에 하는 oncoplastic surgery를 한국에 도입하신 후 지난 25년간 발전 경과를 강의 하셨습니다.

미국 글지의 robotic prostatectomy center를 이끌고 계신 Assistant professor David Lee(Urology,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PA, son of Jung Pil Lee, MD 1964)는 최근의 robotic prostatectomy의 현황을 보고 하시면서 이 수술의 장단점을 보여 주셨습니다.

Dr. Michael Kang (Insall-Scott-Kelly Institute, NY, NY, son of Yoogoo Kang, MD 1971)은 다양한 hip and knee replacement의 장단점을 설명 하시면서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computerized Alignment technique이 의사와 환자의 주목을 끌고 있다고 보고 하셨습니다.

김제홍 박사(71, Rehabilitation Medicine, Jameson Health System, New Castle, PA)께서는 노년에 많이 있는 통증, 특히 spinal stenosis, osteoarthritis, rotator cuff syndrome과 fibromyalgia를 중점 강의 하셔서 청중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세 번째 강의들은 박영배 교수(73, Card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께서 주관하신 심장질환 이었습니다.

이종규 교수(57, Cardiology, Jong Koo Lee Heart Clinic, Seoul, Korea)께서는 증거에 의한 의학을 하도록 강조하셨으며, 그 예로 B-Blocker는 심장기능이 저하 되신 환자에서 효과가 있으며 Calcium은 심장마비나 Stroke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강의 하셨습니다.

노재홍 부교수 (71, Cardiology, Columbia University, NY, NY)께서는 최근에 개발된 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의 각종 임상연구 결과를 보고 하시면서 이 방법이 종래의 수술이 힘든 심관 Aortic valve stenosis에 아주 좋은 결과를 보여 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중행 박사 (69, Cardiac Surgery, Sherman Hospital, Elgin, IL)는 Chicago 지역의 큰 눈사태로 준비하신 심장의과 강의를 못 하셨습니다만 학술대회를 참여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박영배 교수 (73, Card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께서는 임상에서 보기 쉽지 않은 coronary spasm에 대해서 흥미있는 강의를 하셨습니다.

김재석 박사(72, Cardiology, Florida, Heart Institute, Orlando, FL)께서는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balloon angioplasty, bare metal stent, drug-eluting stent의 장단점을 강의 하셨습니다.

네 번째 강의들은 강유구 교수(71, Anesthesiology, Thomas Jefferson University, Philadelphia, PA)께서 사회를 보신 간 질환 들이었습니다.

한혜원 교수(61, Hepatology, Thomas Jefferson University, Philadelphia, PA)께

서는 B형 간염과 간암이 있는 환자에서 antiviral therapy를 한 연구 결과를 보고 하셨습니다 이 치료 방법이 간암 치료에 큰 역할을 할 것 이라고 예측 하셨습니다.

유환영 부교수(85, Hepatology, Indiana University, Indianapolis, IN)께서는 간 경화 중의 pathophysiology와 합병증을 설명 하시면서 liver dialysis와 stem cell을 이용한 간세포 이식이 장래의 치료 방법이라고 제시 하셨습니다.

서경석 교수(84, 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께서는 서울대학을 세계 굴지의 간이식 병원으로 육성하셨는데 간정맥을 개조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living donor 간이식의 성공률을 크게 늘렸다고 보고 하셨습니다.

한영수 박사(67, Retina Consultant, North Shore University Hospital, Queens, NY)께서는 시력장애가 가장 큰 노인층 안과 질환이며 백내장, 녹내장, 당뇨병에 의한 각막장애와 macular degeneration은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 하셨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암 치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승신 교수(76, Radiation Oncology, SUNY Upstate Medical University, Syracuse, NY)께서는 지난 30년간의 암 치료의 발전 사항을 설명 하셨습니다. 발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건강생활 교육과 조기 암 발견에 있으며, 치료 면에서도 수술, radiation therapy와 chemotherapy를 합친 combined therapy로 사망률을 많이 줄일 수가 있었다고 보고 하셨습니다.

한효숙 조교수(99, Oncology, University of South Florida, Tampa, FL)께서는 유방암에서의 multi-gene expression profiling에 의한 target therapy의 장점을 설명 하시면서 humanized monoclonal anti-body 가 HER-2(+)유방

암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고 설명 하셨습니다.

최찬혁 교수(63, Radiation oncology, Harvard University, Boston, MA)께서는 초기 폐암은 외과적으로 치료 되지만 진행된 폐암은 combined therapy가 효과가 있으면 EGFR inhibitor, ALK inhibitor나 BRAF inhibitor를 사용하는 target therapy가 치료에 큰 도움을 준다고 강의 하셨습니다.

김태곤 박사(01, Medicine, University of Miami, Miami, FL)께서는 그린 프로젝트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며 stem cell 이식에 연구를 하여 왔습니다. 장래에는 memory T-cell의 연구가 stem cell 이식을 도와서 암 치료에 기여 할 것 이라고 제시 하셨습니다.

양정현 교수 (73, Surgery,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께서는 지난 200년간의 외과 발전과정을 보여 주셨습니다. 외과는 1920년경에 마취, 소독과 혈액수혈 개발 되면서 급진전을 보였는데, 조선 말기에 시작된 한국의 외과 기술도 세계 굴지의 의학 수준으로 발전이 되었다는 가슴이 흐뭇해지는 강의를 하셨습니다.

박상철 교수 (73, Biochemistry, Gacheon University, Incheon, Korea)께서는 노화에서 오는 생화학적 연구 결과를 보고 하셨습니다. 노화현상은 growth factor나 apoptotic stress에 대한 반응이 적은 데에서 기인되며 앞으로의 연구가 노화와 암 치료에 기여 할 것으로 예측 하셨습니다.

마지막 강의는 2011년 함춘의학상을 받으신 최인섭 교수(72, Interventional Neuroradiology, Tufts University, Burlington, MA)께서는 non-invasive cerebral aneurysm repair에 관하여 강의 하셨습니다. 다양한 coil이나 flow diverter를 이용한 치료 방법을 자세히 설명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번 학술 대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준비와 진행을 이끄시고 지도 해 주신 동창회 회장님과 집행 위원님들, 먼 길을 오신 연사님들, 그리고 끝까지 강의실을 떠나지 않으신 동창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들은 학술대회를 통하여 좀 더 유능한 의사들이 되었다고 자부 합니다.

Summary of Panel Discussion with Ex-Presidents

미주동창회 처음으로 실시된 이 토론회는 예정대로 컨벤션 기간중인 1월 21일 5시 30분경에 실시되었다.

참석인원은 현회장, 전회장들, 그리고 모든 동문들에게 공개되었다. 사회는 현 출판위원장 김병석 동문이 맡았다.

질문 1: 동창회장으로서 가장 보람 있던 일과 가장 어려웠던 일들은?

정정수: Secretary(총무)가 없었던 것과 non-profit organization이 아니었던 것이 힘들었다.

한성수: 회장직은 fulltime job 이었다. 그러나 큰 문제는 없었다. 총동창회 사무실과 지방 동창회 사무실간의 communication이 문제였다. 동기동창회에는 많이 모이면서 총동창회에 많이 참석 안하는 것도 문제였다.

최준희: Secretary(총무) 찾기가 힘들었다. 동창회 행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annual convention과 annual ball이며 참석이 가장 중요하다.

문대욱: 동기대표와 지부장을 활성화 시키고 후배들을 많이 영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문 2: 동창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안.

최준희: 은퇴한 동문들이 더 많이 참여해야 된다. 각 지부에서 동창회의 revenue를 나눠 써야한다. Chicago지부에서는 이미 쓰고 있다. 동문들의 회

비 납부가 필수적이다.

정정수: 서울의대 졸업생임을 자랑 하라.

한성수: 총동창회 임원들이 선후배 관계를 돈독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예를 들자면 은퇴한 선배를 도와준다던가. 시계탑도 많이 향상해야 되겠다. 읽을만한 재미있는 기사를 써라. 긴 기행문은 그만 실었으면 한다.

질문 3: 동창회의 장래를 어떻게 보나?

한성수: Young generation이 take over 하게 될 것이다.

권정덕: 젊은 회원을 많이 영입하자. 사회봉사도 하자. Website를 더 활성화 시키자. 자금과 예산도 잘 확보해야 되겠다.

박찬형: 계속 marketing을 하고 website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된다. 문대욱: e-mail을 활성화해서 쓰자. Charity Committee가 그 좋은 예다. Scientific Convention의 질을 높이려면 젊은 세대가 더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질문 4: 기타 자유발언.

1. 한인동포사회를 위한 교육행사를 많이 하자. 각 의대동창회간의 협조를 모색하자.

토론회는 6:30분경에 종료되었음. 사회자: 출판위원장 김병석(59) 제공

The 29th Annual Convention and Scientific Meeting

Jan. 20 (Friday) ~ 22 (Sunday), 2012 / Hyatt Regency Grand Cypress, Orlando, FL
Jan. 22 (Sunday) ~ 28 (Saturday), 2012 / Curise

2012 29차 콘벤션을 마치며 - 권정덕(64), 김재석(72), 서인석(73)

회장 및 모든 officer들께서 각자 맡으신 책임 분의 120%이상 완벽하게 준비해 주신 덕분에 2박3일의 콘벤션을 피곤한 줄도 못 느끼고 수월하게 끝낸 것 같다. 가슴을 졸이며 애를 태웠던 준비기간을 되돌아보며 소심한 성격을 질책해 보았다.

혹시나 하며 부탁을 드렸었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성실하고 완벽한 레포트를 보내오셨다. 메들리 식의 레포트 모음으로 콘벤션 보고를 대신한다.



18시간여 비행하신 후 호텔에 도착하셔서 check-in도 뒤로 미루시고 강의실로 직행하신 노익장 강신호(53) 명예회장님, 편애하신다는 질책도 마다하시고, 우리 미주동창회를 특별히 아껴주시는 박용현(68)회장님, 김성덕(71) 대한의학협회 회장님, 정희원(75) 서울대학교 병원장님, 졸업 55주년 행사를 겸해 참석해주신 57년 선배님들을 비롯, 참석해주신 모든 동문 및 가족 분들께서 보내주신 감사를 드린다. 박준홍 동창회장님의 유지를 받들어, Mrs. 박 및 가족들께서 보내주신 특별장학금으로 여덟 명의 레지던트 및 가족들이 참석, 이번 콘벤션을 더욱 빛내주었다.

Fashion Show(1월 20일, 금) - Mrs. 광승용(71) 및 Mrs. 최준희(64)

최준희(64) 부부의 하와이안 홀라 댄스를 시작으로, 김재석(72) 부부의 모던 댄스, 심인보(83) 부부의 chef 공연, 석창호(72) 부부의 코믹한 Swan Lake 발레 공연, 미인과 야수의 복장으로 열연을 펼친 문대옥(73) 회장 부부, Mrs. 정구영(57)의 우아한 한복, Mrs. 백승원(79)의 화려한 댄스복장, Mrs. 권오기(78)의 감각적인 의상 등이 선보일 때마다 우레 같은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마지막으로 등장하신 이만택(58) 부부께서는 결혼 50주년을 맞아, 백승원 부회장의 주례로 제2의 결혼식을 올리셨다. 재삼 결혼서약을 확인하시고 서로에게 바치는 시를 낭독하신 휘날래 장면을 지켜보는 모든 동문 및 가족들의 가슴을 뭉클케 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결혼 50주년을 맞는 동문 부부들께서 단체로 결혼서약을 주고 받는 행사가 콘벤션의 주요 이벤트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Talent Show (1월 21일, 토):

백승원(79) 사회, 하청일 가수, 김진 및 그녀의 악단

참가한 15명 모두 뛰어난 매너와 가창력을 발휘했고, 청일점 김중권(69)선배님의 만담에 배꼽들을 쥐어 잡았다. 처음으로 시도해본 '나 가수' 식의 판정으로 선우건영(63)과 문광재(68)선배께서 공동 3위, '오솔레미오'를 열창하신 장인호(63)선배께서 2위, 구성진 창를 뽑아내 기립박수를 받은 박상철(73) 모교 생화학교수(현 가천의대 암연구소장)이 명예의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대뉴욕지부 회장으로 선출되어, 골프대회와 annual ball에서 타고난 talent와 끼를 유감없이 검증 받은 백승원 부회장이 걸출한 사회자로 전국 무대에 데뷔한 역사적인 이벤트였다. 왕년의 명가수 하청일과 아틀란타에서 활동중인 김진 가수의 빼어난 노래 및 사회습씨가 함께 어우러진 마지막 밤의 흥겨움을 아쉬워하며 내년을 기약했다.



Cruise 후기 - 남광선 (Mrs. 문대옥 73)

동창회를 맡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동시에 갖는 convention을 생각하며 남편을 도와 여러 가지 option을 점검해 가기 시작하였다.

앞서 봉사하신 회장단들의 노고와 수고하심을 다시 한 번 감사하며 무거운 책임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지난 여러 해들의 convention의 프로그램들을 검토도 하고 동기들끼리는 동기모임으로 많이 여행들을 다니셨고 또 여행을 개회한 동기들도 계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경기 불황으로 가격이 많이 싸진 cruise에서 가며으며 36시간씩 항해하는 시간에 convention을 하고 각 섬에 내려 하루씩 보내는 시간에 좋은 시간을 가지면 뜻 깊은 여행이 되겠다는 생각에 이 계획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개업에 바쁜 후배 임원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짧지만 충실한 convention을 이틀에 걸쳐 하고 cruise 여행을 하는 계획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계획이 세워지자 많은 동문들과 동기모임들이 같이 참여하기를 위해 전화출에 불게 되었다. Cruise는 빨리 신청을 해야 되는 관계로 회장 임기 시작 수개월 전부터 모든 동문들께 빨리 알리고 참여, 협력을 부탁드려야했다. 우리가 동부에 사는 관계로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는 동부, 10시부터 밤 1시까지 서부, 밤 1시부터 밤 3시까지 한국, 이렇게 몇 달 전화 줄에 살았다. 많은 동문들과 여러 선배 동문들이 동기모임으로 협력해 주셔서 220여명의 동문들이 참가하게 되었다. 여행 날짜가 가까워 오면서 자기 맡은 일에 완전을 기해야 하는 남편 성격에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였다. 많은 동문들을 모시고 가는 데 답사를 가야 된단다. 이미 family reunion 으로 갔다 온 여행일정인데 배가 다르단다. 할 수없이 그 길로 답사를 위한 크루즈여행을 예약하고 다녀오는 길에 학술 대회가 열릴 Orlando Cypress Hyatt Regency 호텔을 점검하게 되었다. 배 속에서의 모든 활동은 물론 각 섬에서 주어지는 모든 활동들에 시간이 허락하는 데로 참가하며 어떤 것이 우리 동문들에게 맞고 어떻게 하면 더 싸게 할 수 있을까 알아도 보았다. 비가 온 관계로 알아보지 못한 섬은 여행사에게 맡겼다.

다음은 cruise 하면서 가는 날 온 종일, 오는 날 온 종일에 대한 계획이다. 열심히 사시는 동문들이시라 시간을 보람되게 보내시기를 기대하실 것이리라 이 일은 나에게 주어졌다. 크루즈에 참여하는 동문들 중에서 감사들을 구해야 했다. 자타가 인정하는 수재들의 동문모임이라 감사들을 구하는 것은 쉬웠다. 또한 거의 그 내용들이 감사들의 취미 활동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들이었는데 그 내용들이 아마추어를 넘어 프로 수준급들이었다.

1월 22일(일): 승선, 배의 이모저모 익히기

1월 23일(월): 9am: Photography (전희근), 10am: 경제시사 및 투자(John Baek), 11am: wine tasting (이건일), 2:15pm - 2:45pm: Ice Carving, 3:00pm: Preventive Medicine (조수현), 5pm-5:45pm: Ice Show(Ice Ring), 10pm: Photograpy (나두섭)

1월 24일(화): Haiti, Labadee Island (Royal Caribbean Cruise Line Property)

1월 25일(수): Jamaica: Island Tour, Garden Tour

1월 26일(목): Grand Cayman - Play with Sting

Ray, Snorkling, Turtle Farm with turtle soup

1월 27일(금): Cozmel, Mexico - Snorkling, Ruin Tour,

Blue Agave Farm and Light House

1월 28일(토): 9:00am Osteoporosis (김영남), 10:00am Golf & Sports Medicine (문대옥), 10:30am 한국인의 건강관리(이종구 동문), 11:00am Painting 이론(Mrs. John Baek: professional painter), 12:00 Noon-1:30pm Executive Chef Demo

12:00Noon-1:30pm Towel folding Demo, 1:30pm 암을 극복하라(백남선), 2:30pm: Trauma centers in the World(김한중), 2:30pm (2) Flower Design "Ikebana" (Mrs. 심완섭), 3:00pm How to Sing Better(전희근), 3:00pm-4:30pm Computer (Mr. Park, Joong So: Dell Consultant), 3:30pm-4:30pm

Painting 실기(Mrs. John Baek)

매일 저녁 식사는 6시에 있었으며 동문들의 모임은 매일 저녁 7시부터 만나서 다음 날의 일정에 대한 설명과 우리 동문들을 위해서 배 자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병합해서 마련한 특별한 일정표를 배부한 후에 흥겨운 reunion의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매일 저녁마다 가라오케를 준비하고 진행해 주신 김중권 동문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저희 내외는 동문들의 즐거운 여행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불편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여행 동안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좋은 날씨를 갖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Painting 실기 강의중 Mrs. John Baek이 그린 고용규(73) 동문의 초상화





Book Writer's Forum: 동문 책 저자들의 모임 - 김병석(59)



서울의대 미주동창회 사상 처음으로 이번 컨벤션에서 책을 출판한 동문과 배우자들의 모임을 시도했다. 노용면(55), 김일훈(57), 김병석(59), 임경자(Mrs. 김병석), 임낙중(59), 이해원(61), 이종오(64), 허선행(64), 정유석(64), 정재옥(Mrs. 송관호 64), 우준균(67), 서윤석(68), 서량(69), 이원택(71), Mrs. 민인기(73), 임혜기(Mrs. 임준형 73) 등 17명이었다. E-mail 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지만 미처 연락이 닿지 않은 동문들이 더 있을것 같다. 이번 Scientific Convention에 참석한 저자 동문은 약 8명 정도였고 이 중에서 출판동문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던 동문은 여섯 명이였다.

이 책에 대한 소개는 non-credit course의 프로그램에서 발표 했다. 이해원(61) 동문은 '오페라는 누구나 즐길수 있다' 라는 오페라 감상에 대한 저서를 남편 한수웅(61)과 함께 썼다. 오페라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아리아 CD를 동문들에게 나누어 주어 아주 흐뭇한 시간이 되었다. 저자들의 모임에서 정재옥(Mrs. 고 송관호 64)씨는 본인의 수필수상 해외한국 수필문학상, 해외 경희동포 문학상, 연암 기행 수필문학상에 대해서 소개하고 저서 '나 할 말 있다면 그대 사랑한다는 말뿐이네', '뉴욕의 황진이', '여름이 되면 티티새는 울지 않는다', '별 하나에 당신 별 하나에 나' 등의 내용을 소개했다. 임혜기씨(Mrs. 임준형 73)가 본인의 신간 단편 소설집 '맨해튼 블루스' 에 대해 소개했다. 장편소설로 '씻은 언제나 많고 돌은 적다', '사랑과 성에 관한 보고서', 수필집 '결혼한 여자의 자유' 등이 있다. 서윤석(68)동문은 시집 '고마운 마리아' 를 펴내 그에 대한 소개를 했다. 김병석(59) 동문은 부인 임경자씨와 공저로 '최면으로 창조하는 삶'을 지난 10월에 출판했다. 김병석 동문의 저서는 '미국생활의 정신건강' 심리수상집 '그래도 살고싶다'와 2세를 위한 영문 'The Road to American Dreams'가 있으며 임경자씨는 시집 '깨어나는 산', 'Mother and Dove' 수상집 '단팥빵 속에 남겨둔 행복' 등이 있다. 처음 시도한 이번 모임은 작은 규모였으나 앞으로 계속한다면 동문들의 교양을 높이고 시계탐에 기고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해에는 더 많은 동문들이 좋은 저서를 출판하여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삶이 어차피 짧은 항해라면 크루즈 같은 여행이어야 좋은 것 아닐까. 호화 여객선을 타고 온갖 산해진미로 배를 불리면서 시간 마다 짜놓은 여흥을 즐기고 마음에 드는 일 찾아 하다가 정박한 도시에 내려 색다른 풍물을 감상하며 여유 있게 시간을 죽이는 크루즈 같은 인생을 보낸다면 풍요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스트레스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오랜 시간 아무 숙제도 일거리도 해야 할 일도 없이 열심이 놀기만 하려면 그 막막함에 스트레스를 받을 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이번 캐리비언 크루즈 여행을 무조건 잘 쉬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시작했다. 허나 배에 오르면서부터 무엇을 하며 지낼 것인가 하는 불안이 사실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액션에 문제가 있는 남편과 지내야 할 시간과 공간이 갑갑하게 여겨지기도 했다. 사실 지난해도 나는 지중해 크루즈를 다녀왔다. 엘에이의 방송국에서 모집한 여행이라 아는 친구 하나 없는 단체에 끼어서 열을 정도를 지냈다. 그러나 정착하는 곳마다 유럽의 오랜 항구 도시라 혼자 해매기도 하고 배에서 모집하는 답사를 따라 다니며 전혀 심심할 틈도 없이 지낼 수 있었다. 이번엔 수술한 남편의 휴양 기간이라 그의 거동이 힘들어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시작했다. 배에서 먹고 놀고 하는 일이 전부였다. 정착하는 캐리비언 섬들은 오래 전 한번쯤 지나친 곳들이라 큰 흥미가 없었고 바닷가와 물놀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체질이라 나는 기껏 항구 주위의 보석가게나 기뒀거렸을 뿐이다. (크레딧 카드를 지참하지 않은 건 정말 잘한 일이었다.) 십여 년 전 의대 동창회에서 바하마 크루즈를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데리고 갔던 딸이 혼자 놀면서도 즐거웠는지 크루즈를 가고 싶어해서 이번에 데리고 간 것은 참 의미가 있었다. 언제 우리 부부가 딸과 함께 또 갈 수 있을까 싶어 딸의 약혼자까지 함께 갔으니 오묘한 가족여행으로 적격이었다. 허나 연말에 남편이 대수술을 받아 여행을 포기하려고도 생각했었다. 거의 환불이 불가능해서 취소는 하지 않고 못 가도 할 수 없다고 여겼는데 가족들 모두 행복하게 잘 놀고 무사히 돌아오게 되어 좋은 추억으로 남은 고마운 여행이 된 것 같다. 배에서 미세스 분이 이번 크루즈 여행에 대해 시계탐에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했다. 쉽게 수락을 했지만 나는 어찌자고 메모 하나 없이 여행을 했고 지금 이 시간에 추억을 꺼내서 글로 만들 자료가 전무하다는 난관에 봉착했음을 느

킨다. 지금 이 글을 쓰는데 여행이 1월이었던지 2월에 왔는지도 기억이 없다. 아, 1월에 떠나서 2월에 돌아온 것 같다. 지난주의 행보도 기억이 안 나는데 두 어 달 전의 일을 써야 한다는 사명감이 괴롭지만 머리에 떠오르는 것을 쓰도록 하겠다. 이번 동창회의 크루즈는 남편의 동기인 문대옥 회장이 주선을 했고 아주 성공적으로 참가한 사람 모두를 만족하게 하는 여행이었다는 결론이 우선 떠오른다. 크루즈를 기획한 문 회장 부부의 고생은 옆에서 보기에 딱할 정도로 크고 지극했다. 책임자라는 중책과 아무나 모여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라 선배 배로 모인 단체라는 애정 때문에 그토록 힘들여 불철주야(?) 고생했을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도우면서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한 흔적이 많으며 그 수고는 우리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감사함으로 남을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부터 참여하여 30여명이나 모인 동기들의 뜻 깊은 만남은 늘어 갈 일만 남은 동기들의 남은 인생에 두고두고 되새겨 보며 흐뭇하게 추억할 감회를 만들기에 충분하리라고 여긴다. 처음 포트에서 배에 올라 여행길에 오르면서 나는 절대 과식하지 말라는 엄명을 스스로에게 내렸다. 배에는 곳곳에 먹을 것이 있고 잘 먹지 않던 끼니까지 마구 챙겨먹는 못된 충동을 자극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도 아침은 하루를 잘 보내려면 먹어야 하니 먹었고 점심은 배가 고프든 말든 시간이 되었으니 먹었고 저녁은 그날의 하이라이트이고 가장 관찮은 음식을 안 먹을 수 없으니 먹어야 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크루즈 여행을 떠나면서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발상은 사실 현명하지 않다. 아주 바보 같은 결심이 될 수 있다. 바보가 되는 걸 면하기 위해 삼식을 잘 챙겨 먹지 않을 수 없었다. 80 여 나라에서 모였다는 조리사들의 솜씨도 간과할 수 없어서 의무적으로 잘 먹어 주었다. 나는 거동이 불편한 남편이 할 일이 없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는 선실을 나가면 돌아오지 않아서 도대체 무얼 하고 지내는지 궁금할 정도로 행방이 묘연해 잘 놓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하루는 선실의 귀가 시간이 너무 늦어서 회장에게 신고할 정도였다. 배 안에 있지 어디 있겠느냐고 회장은 내 걱정을 일소했지만 나는 난간에 서 있다가 실족해서 바닷물에 빠졌으면 어쩌나 하는 상상으로 몸이 떨리기도 했다. 태연히 나타난 그를 보고 반가워서 어디 있 있는 지는 추궁하지도 않았다. 저녁마다 베푸는 쇼도 모두 착실하게 감상했고 춤을 출 일이 있으면 심야임에도 불구하고 돌아 다니며 즐기고자 했다. 마침 이런 율동을 좋아하는 두 분 짝꿍을 만나 혼자 다니는 고독은 없었다. 특이하게 여긴 것은 지난번의 크루즈는 무도장마다 부딪칠 정도로 사람들이 물러나와 흔들었는데 이번엔 사람이 모이지 않아 밴드가 맥 빠져 하는 기색도 있었다. 저녁마다 하루의 뒤풀이로 모이는 노래방에도 열심이 참석했다. 마지막 날은 참석자에게 튜브에 들은 고추장 한 박스 씩 상품을 주었는데 이것을 받아 지금도 잘 지니고 있다. 노래방에서 부르는 일행들의 노래를 보면 확실한 실버 에이지 입을 실감할 수 있었다. 요즘 세대들에겐 클래식으로 통할 메뉴가 대부분이었다. 나는 남자들이 외국 노래라면 왜 그리 <오 데니 보이>를 많이 부르는지 의아해 했는데 고등학교 음악시간에 철저히 배운 노래라는 정보도 알게 됐다. 우리 단체의 구성원들은 사실 귀들도 어두운지 사회자가 같은 안내를 여러 번 하는데 판소리하기, 오해하기, 그냥 혼자 짐작하기 등을 예사로 하는 눈치가 보였다. 나 역시 사회자가 말을 할 때는 안 듣다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면 옆 사람에게 다시 물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예사로웠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건 노파심과 이기심과 그리고 무관심이라는데 3위1체로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한 것도 이번 여행의 발견이라고 해야겠다. 수영도 했다. 하이티의 아름답고 푸른 물에 들어가 버둥대다 나오는 의식을 치렀고 멕시코의 코즈밀에서도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깊은 물에 몸을 담갔다. 앞으로 바다에 들어갈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시도한 중요한 행사인 셈이다. 예전에 만나본 적이 있던 동기 부인들은 모습은 그대로인 듯싶는데 세월이 변했다는 증거로 할머니가 된 사람이 많았다. 손자가 생기면 그냥 할머니 타이틀이 따르기 마련이니까. 인생이 크루즈라면 좋은 짝과 좋은 일행과 그리고 좋은 스케줄이 견비해야 금상첨화일 것이다. 이번 여행은 그런 것들을 견비한 내 인생의 짧은 여정이었다. 여행을 전혀 좋아하지 않던 임준형씨가 돌아오는 길에 문득 '우리 일 년에 한 번씩 크루즈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하고 물었다. 하고 싶다는 뜻인가 보다. 나는 맞장구는 치지 않았지만 그가 충분히 즐겼다는 메시지로 받았다. 그렇다. 쉬엄쉬엄 즐기며 살다보면 갈 곳에 정착하리라.



는 우리들을 발견한 것도 이번 여행의 발견이라고 해야겠다. 수영도 했다. 하이티의 아름답고 푸른 물에 들어가 버둥대다 나오는 의식을 치렀고 멕시코의 코즈밀에서도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깊은 물에 몸을 담갔다. 앞으로 바다에 들어갈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시도한 중요한 행사인 셈이다. 예전에 만나본 적이 있던 동기 부인들은 모습은 그대로인 듯싶는데 세월이 변했다는 증거로 할머니가 된 사람이 많았다. 손자가 생기면 그냥 할머니 타이틀이 따르기 마련이니까. 인생이 크루즈라면 좋은 짝과 좋은 일행과 그리고 좋은 스케줄이 견비해야 금상첨화일 것이다. 이번 여행은 그런 것들을 견비한 내 인생의 짧은 여정이었다. 여행을 전혀 좋아하지 않던 임준형씨가 돌아오는 길에 문득 '우리 일 년에 한 번씩 크루즈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하고 물었다. 하고 싶다는 뜻인가 보다. 나는 맞장구는 치지 않았지만 그가 충분히 즐겼다는 메시지로 받았다. 그렇다. 쉬엄쉬엄 즐기며 살다보면 갈 곳에 정착하리라.

요즘 거리를 걷다보면 혼자서 걸으면서도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며 지나간다. 심지어 전화기를 손에 들고 문자 메시지를 하면서 사거리를 건너가기도 한다. 어쩌다 지하철을 타도 많은 사람들이 전화기 화면을 향해 열중이다.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어딜 가나 스마트폰(smart phone)이라는 전화를 들여다 보느라 주변을 살필 정신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타블렛 이라고하는 작은 컴퓨터를 들여다 보는데 정신이 팔려있다. 그 대표적인것이 아이패드(ipad)인데 요즘 새로 나온 ipad을 사려고 그전날밤 가게앞에서 줄을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중국에서는 이것을 사겠다고 너무 사람들이 몰려들어 난동이 일어났었다고 한다. 또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face book), 트위터(twitter)라는 사이트를 들여다 보는데 집중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물론 정보를 쉽게 얻어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절도있게 기계와 문명을 사용하여 생산적으로 발전해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러나 가끔은 궁금해진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그리 정신집중을 해서 들여다보고 있을까? 문자 주고받기, 이메일 읽기, 여러가지 정보읽기, 게임하기, 영화보기, 수없이 많은 웹에 들어가서 샐핑하기 등 여기에 매달려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자기 본분과 할일을 미루고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고 자기 인생의 방향도 있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안방에서 드라마를 보고 등 보는 일에 호기심과 재미와 휴식을 취하는지 어쨌던 사람들은 들여다 보기를 좋아 하나 보다. 삼십여년전 핸드폰이나 컴퓨터 구경도 못하던 시절에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파이프홀(peep hole)이라는 것이 유행을 했었다. 아마 지금도 있으리라 믿는데 돈을 넣으면 여자 나체 영화나 섹스하는 장면같은 포르노를 들여다 보며 즐길 수 있는 기계였다.



들여다 보기

김 병 석(59, 대뉴욕)

가끔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 안가고 밤새도록 컴퓨터만 매달려 있다하여 억지로 끌려온다. 자녀의 앞날을 위해 정신과 상담을 위해 자녀를 데리고 오건만 자녀들을 대해보면 부모님들에 대한 존경심마저도 거의 없다. 오히려 자신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고 자기 부모가 문제라고 하며 의사인 내말은 듣는중 마는중 핸드폰으로 문자교환하느라 바쁘다.

어쩌하면 이런 사태를 바꾸어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정신을 쏟고 부지런히 드러다 봐야할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자기자신의 마음임을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나 혼자서 고민을 해보았지만 지금 이 사태를 보아하니 한숨만 나올 뿐이다.

과학과 자본주의 발전이 사람들의 몸을 편하게 하고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었으나 마음을 복잡하고 빈곤하게 하고 있다. 밖에 있는 많은 기계나 호화 사치품에 마음과 눈이 돌아가 있어서 안에있는 자기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점점 빼앗기고 있다.

자신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느끼는지를 바라볼 틈이 없어 보인다.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을 다시 생각해볼 여유가 있을 리 없어 보인다. 타인의 행위를 판단하고 평가하며 주변 상황에 동요하며 살아가기 바쁘니 말이다.

자신의 마음을 직시하고 마음의 움직임을 느끼고 그에 의한 행동에 책임을 지며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 눈을 마음으로 돌려야 한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TV나 다른 영상매체에 보태서 스마트폰, 아이패드, 컴퓨터가 많은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다.

이런 현상의 부산물은 윤리 도덕심, 양심, 효도심, 인간존중심, 예의범절이 자리를 잃어가고 점점 마음의 상실이 온다. 눈과 마음을 문명의 기기에 빼앗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과 사물에 대한 생각과 배려와 나눔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따라 가정의 파괴, 사회의 혼란이 악화되고 세계적으로 갈등이 커져가는 것이다.

신문지상에서 가끔 기사화되는 내용을 보면 친교와 정보 교환이라는 좋은 목적하에 시작된 네트워크로 인해 적지 않은 부작용과 위험이 노출되고 있다. 가끔 요즘 젊은이들의 생활을 알고 싶어서 페이스북을 열어보면 그들의 사용하는 언어와 대화 내용들이 참으로 경악스러운 경지에 이르러를 본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한 네트워크에서 건전하고 유익한 정보아 대화를 기대한 부모 세대는 모두들 근심을 감출 수 없다. 어떻게 하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여러가지 문명의 기기들을 자녀들이 사용할 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스마트폰에서 문자를 주고 받을 때, 고통과 불행을 덜어주고 기쁨과 행복을 나눠주기 바라는 것을, 또한 과다한 사용과 시간 죽이기 식의 습관을 바꾸어서 자신의 실제 몸과 마음과 생활로 마음의 시선을 옮겨 보도록 도울 수 있을까 말이다.

부처님과 프로이드가 역설했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각자 마음이 고통과 불행과 행복과 기쁨을 만든다는 것이다. 나 하나가 있음으로써 너가 있고, 우리가 존재하는 사회 생활에서 나와 남의 마음이 만

나 살아가는 동안 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와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자신의 인생을 만들고 동시에 더불어 주변의 상황을 만드니 자기 마음을 들여다 보아서 참되고 행복한 자신을 만들기 위해 잘 다스려 가야 한다는 진리의 말이다.

마음 밖에있는 문자나 돈이나 물질이 인간의 행복을 가지고 온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밖에 있는 그것들에 대해 내 안에 있는 마음이 행복행을 느끼고 결정하고 표현하고 나누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작태로는 사람들이 물질과 문명에 끌린 착각 속에 자신의 시간과 정력을 소비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무선전파에 띄워 세상 방방곡곡에 흩날려내고 있으니... 어떻게 지금의 윤리와 도덕과 같은 황폐를 막을수 있으며 진리를 설했던 이들이 인류를 위해 갈구하던 그런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느낄수 있겠는가.

방법을 찾아보고 길을 찾아 보려해도 보이지 않는다. 부모 세대인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변화를 지향해 볼 수 있는 일이 말이다. 자녀들은 그들의 문화와 세대가 있으리라, 나름대로 행복하리라,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리라 위로하며 지내고 있는 중이긴 하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더 자신을 들여다 보는 일, 느껴보는 일, 자신에게 감사하고,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을 되돌아 보는 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싶다. 세상이 아무리 넓어도 내가 서있는 곳이 진정한 삶터요, 세상에 그 많은사람들이 있어도 내 자신이 있음으로써 그들이 존재한다.

길거리를 걸으며 눈에 보이는 사물과 자연과 나 자신을 생생하게 보고 느끼며, 오늘 내가 맞이한 시간과 사람들과 나누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살 수 있어서, 이 다음에 되돌아볼 때 또 아름다운 즐거움과 복을 누릴수있기를 바란다.

고정 자전거



오 태 희(64, 커네티컷)

어느덧 20년이 흘렀다. 나는 1988년 폐암과 뇌암으로 암세포와 숨바꼭질 4년 만에 드디어 폐엽절제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언젠가 아내가 사 온 고정 자전거 stationary monocycle을 침실에 갖다 놓고 하루 5마일, 반시간 정도로 거의 매일 페달을 밟는다. 지난 2월말까지 달린 마일 수를 보니 1만 마일이다. "Let's celebrate." 하면서 딸이 저녁에 피자를 한 박스 사들고 왔다.

Roadmaster 운동기구 회사가 자전거를 만들어 팔 때에 나처럼 오래 굴릴 사람이 있으리라 예상을 하지 않았는지 1만 마일을 달리면 speedmeter가 0000.0부터 다시 시작한다. 하루에 5마일씩 야금야금 올라간 자전거 바퀴 회전 숫자가 벌써 80이 되었다.

이제 2만 마일 목표, 모노 사이클 운동에 나선 셈이다. 하루에 5마일 바퀴를 굴리는 운동은 별 것 아니지만 숫자 단위가 다섯인 1만 마일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6년을 달려야 하는 거리이다. 따라서 내가 적어도 6년을 더 살아 있어 매일 자전거를 타야 한다는 계산이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달리는 반 시간동안 나는 삶의 애환을 자전거 페달에서 느끼며 고정 자전거에 올라앉는다.

한데, 지난 2010년은 또 다른 병자랑

을 하느라 자전거를 매일 타지 못했다. 그 해 봄이 오자 생각지도 않던 담석이- 그것도 골프볼만한 담석이 고동색 복수 infected ascites를 하루에도 몇 파인트 씩 뿜어내기 시작하였다. 호스를 뱃속에 끼워 감염된 복수를 매일 짜내고 염증이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8주일을 기다려야 수술이 가능하였다. 그 8주 동안에 2주는 응급실을 거쳐 입원치료를 받고 나머지 6주는 퇴원하여 간호사들이 번갈아 가며 매일 집에 와서 나의 건강상태를 검사하고 담당 의사에게 보고하였다. 염증이 사라지고 복수를 더 짜낼 필요가 없어지자 의사 사무실로 찾아가 호스를 뿜어내었다. 그렇다고 당장 수술은 받을 수 없었다. 그러니 자전거를 탈 생각조차 나지 않았다. 며칠 더 기다려 6월 15일 새벽 6시에 외래환자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그날 오후에 비로소 퇴원하여 나의 기록적 담석제거 수술은 끝이 났다.

장수의 비결은 오래 사는 것이라는 농담 아닌 농담을 하며 오래 사는 것이 사람의 욕망이다. 현대의학은 질병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모토로 환자를 오히려 괴롭히는 듯, 그래야 회복이 빠르고, 합병증도 줄어든다는데 환자가 되고 나면 그 말을 믿기가 쉽지 않다.

나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새벽이면 어디서 나타나는지 물리치료사가 나를 선잠에서 깨워 걷는 운동을 시킨다. 그렇게 길어만 보이는 외과병동을 한 두 바퀴 걸어서 돌게 한다. 편안하게 잠잠 시간이 없다. 아니 그런 시간을 아예 주지 않는다. 마룻바닥에 질질 끌려 다니는 플라스틱 백이 행여 떨어져 나갈까바 나 혼자 들고 걸어야 한다. 또한 무슨 검사

그렇게 많은지 환자를 언제나 움직이게 하여 쉽사리 녹슬지 못하게 한다. 한때는, 입원했으니 꼭 쉬어라 하던 의학이 아닌가!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한 마디로 사람을 오래 살게 만들었다. 올해로 내 나이 일흔 셋은 어린애다. 어디 가서 명함도 꺼내지 못 하는 나이이다. 사람들은 오래 살기 위해 건강관리로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날이면 날마다 새로 생기는 헬스클럽에는 이른 새벽부터 운동하러 몰려오는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더구나 의학 정보는 이전 의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키보드만 누르면 알고 싶은 의료 정보가 깨알 같이 쏟아진다. 질병의 증상에서 부터 치료법에 이르기까지 쉽게 설명되어 있다. 다이어트 책

이 베스트셀러가 되는가 하면 하루에도 몇 번 씩 먹어야 하던 처방 약이 하루에 한 번으로 바뀌고 부작용 없는 약품제조에 그 많은 제약회사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어느 잡지에선 사람이 백년을 살 수 있는 유전자를 발견하여 실험단계에 들어간다고 한다. 누가 백년을 살면서 이 실험단계를 지켜볼 수 있을 것인가? 농담이 아닐까 바란다. 하여튼 미래의 의학은 누구나 백수를 넘기며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만들뿐만 아니라 죽음을 또한 행복한 죽음이 되도록 잊지 말아야 한다. 여태까지 행복한 삶은 있으나 행복한 죽음은 어디에도 없으니 말이다. 죽음이 삶의 마지막인데 마지막을 행복하게 장식해야 백년 삶이 길이 빛날 것이다.

농담 골목

기독교를 잘 믿는 여자가 목사에게 말하기를 "나의 남편이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참으로 싫어 합니다. 언젠가는 나를 해치고 죽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목사가 대답하기를 "내가 부인을 위해 잘 기도를 할 터이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일 목사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어쩌냐고 해요." 그랬더니 그녀가 말하기를 "그이가 이전 목사님을 해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목사가 대답하기를 "그러면 저 길 건너에 있는 교회로 나가기로 하십시오." (면)

여자의 화장하는 시간은 어느 나라건 매우 길다. 같이 외출하려고 아내를 기다리다 참지 못한 남편, 남편: 여보, 내일 갈거야? 오늘 갈거야? 아내: 뭐예요. 그렇게 큰소리 지르게. 좀 조용하세요. 1분이면 된다고 말한지 아직 한 시간밖에 안됐는데 멀 그래요! (이덕승)

천당에는 남자들 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남자 여러분도 예수를 좀 잘 믿으세요. (철)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가고 싶어요? 아니면 지옥에 가고 싶어요?" "나는 예수를 안 믿으니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가 지옥에 가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살고 있는 세상을 즐거운 생천국이라 생각하면서 삽니다.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 말입니다." (기)

紙上法醫

소파 침대



노용면(55, 대뉴욕)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뉴욕 주...

남편이 침실에 들어가 부인이 앉아...

펼치려 했는데, 담요 자락 한쪽이 침...

침통에 빠져 있는 아버지를 이력저력...

영웅 레닌의 죽음

정유석(64, 북가주)

중세기부터 시작하여 주로 산업혁명...

아무리 이론이 출중했다 했지만 아...

그는 원래 1870년 4월 22일 볼가 강...

극단적인 정치적 사상으로 인해 대...

그도 시베리아에 추방되었다. 레닌은...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무렵...

그 때로부터 정적이 모두 사라진 것...

결국 그는 1924년 1월 24일에 사망...

그의 시신이 전시된 크렘린 광장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성희모(Mrs. 채규철 '59 추모시) Mrs. 김병석 (59)

당신의 77년, 3만여 나날을 건너...

우리는 3월 28일 고 성희모(Mrs. 채규철 59) 동문을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찬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부르며 영결하였습니다.

시계탑 원고모집 안내

모집하는 원고 내용

- 동기 및 동문 동정, 지부소식, 제언과 비평, 수필, 산문, 기행문, 서간문, 독후감, 시, 농담골목 유모어, 자녀들의 자랑 또는 소식

* 성명과 학년을 기재하여 주시고 관계되는 사진, 그림 첨부 바랍니다.

Damian B. Kim, M.D. 141-30 33rd Avenue, Flushing, New York 11354 Tel: (718) 460-5190 E-mail: dbkimmd@gmail.com

우리 동창회를 관찰 해보면 삼 세대 (three generations)의 구성원으로 되는데 나는 그 중에서 가장 노년층에 속한다. 내 글의 내용이 자연히 고리 따분하니까 후배들에게는 매력 없는 것 이리라. 그런 줄 알면서도 울려오는 마음의 어떤 충격을 외면 할 수 없어 나는 이 글을 쓰고 있다.

이제 누군가가 나 보고 '고향이 어디 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답하는데 왜인지 조금 망설이게 되는 것 같다. 미국에서 살아온 햇수가 이제 46년 이 된다. '정들면 고향이지' 라는 말이 있다. 정든 내 집이 있는 데가 고향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뼈를 굳치 기는 한국 이었지만 미국에서 살아온 햇수가 더 많으니 사고방식도 미국 식 의 것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고 언어도 영어가 이제는 불편을 느끼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최근에 쓰이는 어떤 한국말에 어려움을 느낀다. 나의 생애를 돌아 볼 때 순진하고 철없었던 유년시기가 지금도 한없이 그림다. 헤르만 헷세(Hermann Hesse)도 "어린 시절의 기억은 인생의 보물 창고" 라고 말 하였다. 세월을 잘 못 땀던 나에게 미국에 이민 올 때까지 평양에서 시작된 나의 생애를 회고해보면 한국에서 살아온 삶에서는 즐거운 추억이란 찾기 어려운 것 같다.

남들은 자주 하는 한국 여행을 이번 에도 나는 11년 만인 작년 10월 말에 다녀왔다. 요즘 비행기 여행을 하려면 그 좋았던 옛날과는 달리 하찮은 절차가 심한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 신발까지 벗어야 되는 자리에 가서는 만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더욱이 한국에 가려면 비행시간이 길고 지루하여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다가 이번 여행은 사실은 꼭 한 번 더 보고 싶은 친구 가 하나 있어 다녀왔다. 지난 여름에 친구에게 전화를 하니 그가 지병인 허리 아픈 증세는 악화 일로이고 이제는 귀도 잘 안 들리고 체중이 10 키 로나 줄었다 하는 말을 듣고 나는 크게 상심하였다. 그리고 옛 친구를 다시 못 보게 될 것 같은 서운함에 고민하고 있는 나를 옆에서 보든 아내 가 용단을 내려서 갑자기 여행을 하게 되었다.

객지에 나가 오래 살고 성공하여 돌아오면 錦衣還鄉이라 칭하지만 이 말 은 나에게서 합당치 않은 것 같고 사십 여 년의 세월이 지나간 미국에서의 제2의 삶을 돌아보니 내 고향에서 이루지 못한 많은 일들을 늦은 나이에 시작하여 젊은 대열에 끼어 인내 로 성취 하였고 이제 생애 활동의 원점으로 돌아온 기분이니 나의 이번 여행을 復古還鄉 이라고 불러 보았다. 또 이제까지 오래 미루어 왔던 일본 여행도 한국에 들어가기 전에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일본 여행

우리는 몇 해 전에 3 주간의 유럽여행을 기차(Eurail Pass)로 재미있게 하였든 기억을 살려 7일간의 일본 여행도 철도(JR Green Pass)로 하였다. 내가 소학교 시절에 배운 것 중 가장 좋았던 것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일본의 후지 산과 또 하나는 베토벤의 月光曲에 관한 이야기였다. 후지 산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다. 20,000년 전에 지진 폭발로 생겨 난 3,776 미터 높이의 그 산은 좌우가 완전히 대칭적인 원뿔형(cone)을 이루고 있으며 또 둘레에 아름다운 다섯 호수를 끼고 있는 경치는 절경을 이룬다.

10월 21일 나리타공항에 도착 하자 곧 이름난 신칸센(新幹線 bullet train-Hikari 열차)을 타고 후지 산-하코네-이즈 반도(peninsula) 국립공원 안에 있는 하코네 온천 도시를 찾아 갔다. 일본의 신칸센은 특급 급행열차로서 東京과 大阪(Osaka)을 연결하는 홋카이

도 신칸센이 최초로 1964년에 개통 되었다. 도쿄와 오사카 구간 500km(312 miles)를 두 시간 만에 달려간다. 일본 여행에서 비행장을 떠나 제일 먼저 밟은 땅은 하코네 가까이 있는 미시마(三島)역 이었다. 하코네 온천지

復古라는 이름의 여행
restoration

에는 아름다운 '아시노 코'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약 100km 북서 쪽 저편에 정상에 흰 눈을 쓰고 있는 후지 산을 바라보는 풍경은 이 세상 것이 아닌 듯 황홀함을 느끼게 하였다

다음날 홋카이도(北海道) 신칸센을 타고 교토(京都)로 향하였다. 교토는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도시이며 794년에 시작하여 그 후 1,084년 동안 일본의 수도였고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불교문화와 건축 문화에 꽃을 피웠고 많은 일본 고유의 종교 神社가 있으며 茶道文化, 織造文化, 양조 문화(sake), 日本刀 제조문화와 食品文化가 크게 발전한 도시로써 우아한 전통은 살아있는 '일본문화의 박물관' 이라고 불리우며 또 유명한 교육 도시이다. 교토는 일제 치하 나의 중학교 시절에 꿈꾸던 유학의 목표지 이었으나 이루지 못했던 그 꿈을 생각하며 교토의 땅을 밟으니 감개무량함을 느꼈다. 이어서 40km 동남쪽에 있는 나라(奈良)는 百濟의 불교문화를 수입하여 8세기에 번성하였던 古都이다. 佛神의 使者라 일컬어진 이 지방 일대에서 보호되고 있는 사슴이 '나라 공원' 일대 그 넓은 지역의 큰 도로를 포함하여 사방에 넘쳐흐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이름난 고베 소고기(Kobe beef)를 맛보기로 하였다. 고베는 교토에서 62km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고베 상가(Ana Kobe Crown Plaza) 3층에 있는 고급식당 和照(와꾸오)를 찾아 갔다. 우리는 이른 저녁시간에 도착하였는데 특별석으로 안내되었고 잘생긴 젊은 요리사가 특색있는 요리 솜씨를 보이며 우리를 접대하였다. 일본어를 구사하는 나를 보더니 '어쩌면 70여 년이나 쓰지 않았던 일본말을 그렇게 잘 하십니까?' 하며 놀라워 했다. 맨 처음에 얇게 썬 마늘, 전복, 그리고 신선한 야채 요리를 내 놓았다. Chablis Butteau라는 고급 포도주 한 잔을 함께 하였다. 이어서 고베 소고기가 나왔는데 절단면에 온통 하얀 줄기가 가득 차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차돌박이(fat marblings)' 인데 고베 소고기의 특색 이라고 한다. 그 안에는 높은 농도의 오메가(Omega 3&6)와 여러 가지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다고 하며 이들 특별한 성분으로 말미암아 고기가 유난히 연하고 특유한 향기의 원천이 된다고 한다. 이들 和牛에는 네 가지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黒毛和種이 최고품으로 되어 있고 이 黒種의 원산지가 고베라고 한다. 세계 제일 이라고 자랑하는 고베 소고기는 대단히 고가인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날 우리가 치른 저녁 값은 독자의 추측에 맡기겠다. 여하튼 유감없는 좋은 저녁 시간을 보냈다.

이어서 우리는 다시 동쪽으로 향하여 東京을 지나 宇都宮(Utsunomiya)을 거쳐 동경에서 북쪽 140km 지점에 있는 닛코(日光) 국립공원 지대로 향하였다. 닛코의 제일 명소로 꼽히는 곳은 아름답기로 이름난 토쇼구(東照宮)인데 이곳은 도쿠가와(德川)將軍幕府 시대를 창건한 이에야스(家康)의 무덤(mausoleum)이 있는 자리인데 찬란한 색채의 화려한 다수의 건물을 보았다. 잘 세워진 큰 마굿간 건물 정

면 높이에 박힌 '지혜로운 세 원숭이(일본 말로 saru)' 의 목제 조각상은 널리 알려져 있는 터 이다. 시내에서 서쪽 약 15km 거리에 있는 국립공원에는 2486미터 높이 솟은 난타이 산(男體山)을 보게 되는데 그 산의 정상

나 수 섬(50, 메릴랜드)



에 남자 성기 모양의 바위가 있다 하여 이렇게 부쳐진 이름이라고 한다. 그 산 아래에는 넓따란 아름다운 호수 추젠지 湖(中禪寺湖)가 있는데 이 호수도 1269미터 높이에 있다. 어린 시절에 많이 배웠든 명소로써 오래 동안 내 마음에 그려온 장소 이다. 아득히 먼 호수 저편으로부터 맑고 푸른 수면을 지나 불어오는 산뜻한 가을바람을 두 뺨에 맞으며 꿈결인가 하였다. 그곳을 떠나오기 아쉬워 다음 날 아침에 홀로 다시 한 번 찾아 가 보았다. 원래 이 지방은 불교 승려 勝道上人이 766년에 난타이 산에 입산하였고 그 후로 승려들의 은둔생활의 장소가 되었다. 추젠지 湖 호수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은 여러 개의 폭포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름난 곳이 케곤노 타끼(華嚴之滝)이다. 가을이 되면 문자 그대로 절경을 이루는 단풍으로 유명한 곳이다. 이 일대는 온천지로도 유명하다.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기가 죽어서 수도인 에도(江戸, 지금의 동경)를 지키겠노라 하여 자기 종묘를 에도의 북쪽에 있는 日光에 설정하게 하였다고 한다.

단간 렛샤 (Japan Rail Bullet Train) 를 이용한 일주일의 여정은 이렇게 지나가 버렸다. 알찬 시간표에 따른 여정에서 지금 나의 형편에 알맞게 목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유명한 미국의 여행안내서 작가 Fodor의 일본 기행 책의 앞머리에 그는 일본인들의 특성을 세 가지로 평하고 있다. 즉, 일본 사람들은 깨끗하며 순수하고 단순한(Purity, Clarity and Simplicity) 사람 들이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왔고 또 이제 실제로 와서 보면서 동감이 었다.

달라진 모습의 한국

10월 27일 아침 여덟 시에 나리타공항을 출발한 JAL 비행기는 두 시간 반 뒤에 인천 공항에 도착하였다. 인천 공항은 과연 큰 규모에 초현대식으로 잘 지어졌음을 보았다. 셔를 버스를 타고 명동에 있는 로얄 호텔에 도착하였다. 서울에 와서 친척 집이 아니라 호텔에 들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짧은 일정에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우리 형편에서는 명동에 위치한 이 호텔이 여러모로 편리하였다. 명동은 나의 지난 삶에서 있을 수 없는 거리이다. 1950년 졸업하던 그 해 대학병원 내과 의국원(醫局員)으로 시작 한지 두 달도 못 되어 돌발한 한국전쟁으로 7년 4개월 동안 공군군 의관 근무를 끝내고 1959년부터 10년간 가톨릭 의대 내과 교수 시절을 명동 성모 병원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매일 수없이 드나들은 거리가 바로 이 명동 이다. 우리 생활이 넉넉지 못

하던 시절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던 때였다. 공부하느라, 가르치느라, 또 박사학위 연구까지 하면서 정말 눈코 뜰 사이 없는 실정 이었다. 점심때는 명동, 충무로, 을지로에 있는 다방들도 많이 드나들었고 가장 잊혀지지 않는 추억은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 논문 "간장 질환(Liver diseases)에 있어서의 혈액 응고인자의 변동" 을 완성하기 까지 3년간 매일 환자 진료를 끝마치고 나서 밤늦게까지 연구를 계속하였는데 그 당시 서울에서 가장 근대식 건물이라고 자랑하던 성모병원에는 스내 바가 하나도 없어 주린 배를 달래가며 명동거리의 늦은 밤길을 내려오느라면 식당과 요정이 있는 골목을 지나와야 되는데 '송도 빈대떡집' 에서 밤바람을 타고 풍겨오든 그 냄새는 나를 얼마나 애 태웠는지 모른다. 40 여 년이 흘러간 옛 자리를 다시 찾는 내 가슴이 어찌 감개무량 하지 않으리오. 유명했던 송도 빈대떡집은 이제 자취조차 찾을 수 없고 지금은 '명동 교자 칼국수집' 이 들어서 있었고 점심 식사 때가 되면 손님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모습은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우리가 묵었던 로얄 호텔 11층 방 창문을 열면 옛날 성모병원 자리인 가톨릭 회관이 바로 눈 아래로 보였다. 또 내가 조교수 시절에 영세 받은 명동 대 성당이 옆드르면 코가 닿을 거리에 있어 여기에 와 있는 동안 자주 찾아가 보았다. 명동 받거리리는 온통 젊은이들로 가득 하였고 요즘은 쇼핑 하러온 중국과 일본인들로 붐빈다고 하였다. 우리도 자주 나가 길가 접포에서 옛 정취가 물씬 풍기는 오징어 구이, 봉어빵, 군밤, 찰강냉이 등을 맛보며 즐거운 한때를 가졌다.

둘째 날 낮에는 나의 의대 동기 동창들을 모아 호텔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다. 나의 친구 沈鳳(생화학)교수는 지팡이를 짚고 거동이 대단히 힘든데도 나를 만나려고 나와 주었다. 둘이서 포옹한 후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서로 두 손을 꼭 잡고 서 있었다.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만날 기약도 없이 그날 우리는 헤어졌다. 나는 혼자 남아서 물끄러미 우리가 함께 하였던 지난날들을 회상하고 있었다. 적수공 권으로 수다한 곤경을 극복하고 목표를 성취한 동창들 중에서도 심 교수는 拔群의 업적을 남긴 바이며 또 나에게서 희귀한 친구이다. 친구를 마지막 막으로 한 번 더 보기 위한 여행이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 정부 시절에 대령 계급으로 국립 소록도 병원장 직을 두 번이나 자원하여 그곳 환우들의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한 趙昌源 동창은 노익장의 모습으로 근래에 와서는 시인으로 또 肅伯으로 발전하여 계속 활약 중이며 소록도 앞 바다의 물새를 그린 유화 한 폭과 '소록도 세레나데' 시집을 선물로 가져왔다. 다음 날 그와 다시 한번 만나는 자리에서 내가 청하여 전에 자주 가던 하동관 곰탕집을 찾아 갔다. 여전히 별미인 깍두기와 곰탕을 다시 한 번 즐기며 옛 생각에 잠겼다. 식당을 가득 채운 손님 중에 백발의 노인은 우리 둘 뿐이었다. 우리가 만났던 그날 생존하고 있는 나의 동창들 중에서 몇 사람은 최근 수일 내에 일어난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였다. 다음날에는 우리 집 형제와 친척 가족들, 그리고 다음에는 나의 처가측 온 가족들이 모여서 옛정을 새롭게 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아쉬움을 느끼면서 다음 무대로 넘어 가야만 했다.

한국에서 두 주일 머무는 동안 하나투어 여행사를 통하여 마련한 남해 관광을 가게 되었다. 서울-순천-여수-남해-통영-거제-부산-양산-서울 코스인데 여러 군데를 지나가는 동안 대단히 인상적이었던 <다음면에 계속>

회비, 후원하신 동문

- 1941 이규용
- 1949 박근수 김지익
- 1951 이상하 오정희
- 1953 이상봉
- 1955 노용면 양거영 박병원
- 1956 조동립 신명수 주창준 서상철 박상기 유호준 김신형 도상탁 윤신원 민병각
- 1957 윤 찬 이동성 정진묵 김양호 임종식 임종원 정구영 김용진 김일훈 한성택 강영섭 이민자
- 1958 김숙희 이종국 최정희 최창송 박용화 이만택 김부근 이운순 김시한 김기태 김수산 박호현 한영수 유지열 임영신 김백년 배영섭 이종용 이동목 신상균 최병두 김윤범 유영호 이동립 이상설
- 1959 강재룡 신영철 최용천 김교안 김용덕 반용균 이교락 박선용 김은섭 한달수 김병석 나길진 강상진 박용순 임낙중 한성업 김병구 최종진 서경화 최혜숙 임원기 방석운 정태진
- 1960 김영환 김인주 박춘명 이순환 정낙섭 염극용 한성수 김택경 김인환 임필순 이상일 전희근 이덕송 송영조 조재동 임종원 권기홍 이종석 이효빈 박정우
- 1961 장성환 이희경 고의걸 이재승 정철용 이해원 한수웅 양병교 정의철 김유홍 이재두 강창욱 계훈택 박승균 황현상 손기용 안창현 김영기 조은순 최광창 최용성 최지원 서휴열 이희백 김영철 박준환 김혜흠 이준우 손주현 이한수
- 1962 김석식 송영두 이기범 이상복 이석우 구정열 오태요 이영웅 박종건 정정수 남성희 박진수 민경환 이상무 김호균 장병호 이용길 정 태 권익현 조명호 김한종 박찬형 이상원 장한수 유충국 조명호
- 1963 김갑중 추재욱 김태형 윤진수 송용덕 김택수 왕규현 이승현 임춘수 양찬기 이범세 고영희 윤영욱 한광수 조열하 김주응 김현화 김태웅 조한원 박세록 마동일 이능석 김승태 김청하 이병준 윤영섭 장인호 권영재 김현철 한기현 장세곤 이기환 김광섭 김계운 진병학 최찬혁 신경호 이종두 하상태 김재중 선종철 서경석 권영조 선우건영
- 1964 김용두 권정덕 허선행 유창남 박세준 이재풍 정유석 조성준 최준희 이종성 양운택 홍선경 김태환 이주영 유 강 조동준 임병훈 임대복 신두식 김용국 이정은 이유찬 박한영 이홍표 이용만 이종오 한태진 이광신 윤흥기 라찬국 안연승 이길수 송원길 유효명 강창만 선우세현
- 1965 서좌일 손관호 이범석 민경택 정길화 채도경 이광선 이한중 박수안 이정의 조성구 채무원 전영균 구경희 이화성 황규정 유효명 김욱현 권태해 한재은
- 1966 김충규 한일성 장한교 조의열 민발식 김의신 이명희 이상근 윤명선 조관상 최영자 김우신 조규웅 정양수 최순채 이상근 김은한 김용재 김진수
- 1967 이영균 김성철 유진일 지일성 이민우 이준식 육태식 최무웅 한영수 이근웅 이소희 김태웅
- 1968 김 철 박정식 차재철 노영일 송창호 서운석 안금환 이건일 홍광신 김경인 황훈규 김영남 김주평 임공세 김희주 문광재 최 철 서진석 안세현 정재성 신규호 한민원
- 1969 임웅규 이충호 신영찬 송용재 최종일 김중권 김홍서 안병일 윤효윤 김병오 김창남 이지훈 도상철 송기인 엄규동 최종진 조중행 양재관
- 1970 방준재 조남현 박홍식 조영갑 최원일 홍 건 이정길 김형달 유철희 여준구 이성춘 문성길 송요준
- 1971 김효순 강유규 고기영 강창홍 홍성진 배성호 서정자 강태수 김일영 오상현 서상헌 장 철 김유식 조세진 이원택 황동하 이종일 노재홍 김창구 이희영

- 김제홍 오동환 김 훈 정인용 광승용 박동수 장문석 최수강 최영철 이남수
- 1972 오용호 장병호 최인섭 이기진 김재석 정희현 이신재 박명영 석창호
- 1973 이영복 김정용 나두섭 심완섭 민인기 고용규 방병기 문대욱 오인환 서인석 이계석 임준형 송정자
- 1974 권철수 김웅진 구재훈 이흥제 이진현
- 1975 전경배 김자익 박인영
- 1976 한승신 김정아 정경화
- 1977 박일우 강준희
- 1978 권오기
- 1979 백승원 이혁엽
- 1980 박남훈
- 1983 심인보 전원일
- 1985 박종호
- 1986 이영인
- 1989 오우현
- 2001 김태관

Convention Donation

한용현(48)	100	강신호(52)	10,000	이종용(58)	125	이만택(58)	200
최창송(58)	200	이동목(58)	100	김병구(59)	25	염극용(60)	100
이종석(60)	100	강창욱(61)	50	이혜원(61)	500	박찬형(62)	100
추재욱(63)	2,000	권정덕(64)	4,000	허선행(64)	700	이재풍(64)	200
유창남(64)	500	최준희(64)	300	권정덕(64)	4,000	송원길(64)	200
이홍표(64)	125	이성근(66)	75	김주평(68)	75	차재철(68)	200
박용현(68)	3,000	안세현(68)	75	윤효윤(69)	250	엄규동(69)	25
배성호(71)	300	서정자(71)	75	정인용(71)	525	광승용(71)	300
김재석(72)	500	석창호(72)	500	나두섭(73)	100	민인기(73)	100
박영배/박명희(73, 서울)	10,000	방병기(73)	200	문대욱(73)	10,000	한승신(76)	100
서인석(73)	1,000	김천일(73)	100	정희원(75)	2,000	박남훈(80)	25
김정아(76)	100	권오기(78)	200	백승원(79)	2,000	성상철, 백남선, 양정현, 조수현, 김전, 양요한, 박명희/박명희, 전병훈/정애리, 최인영, 오정성 (73년 동기 cruise 참석자, 서울)	2,000
						모교동창회	3,000

General Donation

박근수(49)	75	김지익(49)	100	나수섭(50)	100	노용면(55)	500
서상철(56)	25	김윤범(58)	100	강상진(59)	200	정태진(59)	25
황현상(61)	75	김계운(63)	75	진병학(63)	125	이유찬(64)	200
Mrs. 송관호(64, 송관호 장학금)	10,000	정양수(66)	100	김성철(67)	75	서상헌(71)	75
이건일(68)	100	김형달(70)	50	여준구(70)	50		
김유식(71)	175	박동수(71)	75	최인섭(72)	5,200		

Charity

강신호(52)	10,000	노용면(55)	200	이문순(58)	300	최창송(58)	1,000
김은섭(59)	500	강상진(59)	300	정태진(59)	25	권기홍(60)	1,000
이희경(61)	200	민경환(62)	100	이상무(62)	100	김한중(62)	200
임춘수(63)	100	한기현(63)	200	선우건영(63)	200	추재욱(63)	1,000
홍선경(64)	100	한태진(64)	100	최준희(64)	200	권정덕(64)	200
최영자(66)	500	민발식(66)	200	최순채(66)	200	한영수(67)	200
최 철(68)	100	김중권(69)	200	강창홍(71)	600	조세진(71)	50
정인용(71)	100	광승용(71)	300	노재홍(71)	200	석창호(72)	300
방병기(73)	100	서인석(73)	300	김웅진(74)	100	김자익(75)	100
백승원(79)	3,000	심인보(83)	500				

Green Project

박준홍(51)	10,000	김은섭(59)	125	염극용(60)	100	정태진(59)	25
한성수(60)	75	선우건영(63)	200	허선행(64)	100	조세진(71)	125
정인용(71)	250	서인석(73)	100	김천일(73)	200		

<전면에서 계속>창선 삼천포 대교는 남해군과 삼천포를 잇는 길이 3.2 km의 연 육교로 중간 다섯 개의 섬을 연결하는 다리인데 그 하나하나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참으로 보기 좋았다. 통영-한려수도 케이블카로 미륵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이는 한려 해상의 쪽빛 바다, 보석과 같은 섬들, 그리고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는 통영항의 미경은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2010년, 6년에 걸쳐 거액의 공사비로 또 무엇보다도 순전히 한국 기술진의 힘으로 완공된 4.5km의 사장교와 3.7km의 해저 터널을 지날 때에는 한 민족으로 큰 감명을 느끼게 하였다. 장하다. 배달민족의 후예들이여! 이번 여행에서는 일본에 이어서 한국을 보았기 때문에 두 나라를 비교 관찰 하는데 적합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1868년에 있었던 명치유신(Meiji Restoration)의 힘으로 급속도로 현대화 되어 중공업 육성하여 부국강병 정책을 쓰고 20세기에 이르러서는 군국 제국주의로 아시아를 식민화하니 결국 군벌의 망동으로 미국에 도전하여 패망하였다. 묘하게도 지금의 일본은 지난 3월에 일어난 東日本 大震災 복구를 위하여 전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검소한 생활 안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텔레비전과 또 어디에서나 그네들의 품가집 안에서 볼수 있었다. 국민들은 대부분이 자동차도 소형차를 쓰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뒤에 한국에서 본 모습과 대

단히 대조적이었다. 이어서 지금의 한국을 보았다. 우리는 1969년 1월에 한국을 떠나 왔는데 그 당시 한국의 사정을 보아 나로서는 합당한 결정이었다. 여전히 분단된 국토에서 온 국민의 부단한 노력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의 경제 열강 대열에 참여하게 되었음은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바이다. 한국에 와서 보니 가는데 마다 활기가 넘쳐 있고 준비하게 서 있는 고층 건물 마다 밤 9시 인데도 거의 모두가 근무중임을 볼 수 가 있었다. 자동차는 대개가 중형 이상의 큰 차이며 거리에 보이는 고급 외제 승용차의 수효는 미국을 방불케 하였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문화민족임을 자랑하는 한국은 외세의 덕분으로 해방을 맞이한 지 67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국토 통일은 요원 한 것 같다. 중국(China)이라는 나라가 버티고 있으니 이 점을 생각할 때 망연케 하였다. 동시에 지금 한국의 혼란한 정치 정세를 보고 대단히 한심하다고 느꼈다. 국가의 장래를 짚어질 젊은 층이 침략적 북쪽 집단의 선전 도구로 전락하고 있었으며 한편 기성 정치인들은 의리도, 규칙도, 정의도 없는 소위 야수라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민들을 빙자하여 자기의 기득권만 지키려 혈안이 되어 있음을 보는 내 마음은 지극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었다. 모국의 앞날에 부디 신의 가호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로키(Rocky)에 친구들

(22회동기 의예과 입학 50주년기념여행 후)

서운석(68, 오하이오)

이 작은 별
드높은 로키산정(山頂) 흐르는 빙하수(氷河水)가에
이(李) 박사, 닥터 정 은 누리 명의(名醫)들 다 모였구나
안개 속 손짓하던 이 산정에 귀에 익은 저 목소리
야, 오, 그대 하던 바로 그 목소리
모두들 다 모였구나
태평양 건너 험한 산맥(山脈) 발로 차고 달려온 우리
성대(聲帶)가 터지도록 부르다가 부동겨안고 있는 우리
검은 머리 은발(銀髮)되어 휘날리는 우리
반백년 굴곡(屈曲)의 세월 속에 이어온 끈질긴 우정(友情)이여
비탈에 오르면 편안한 산(山)이 되어주고
먹구름 끼면 맑은 하늘이 되어주는 좋은 벗들이여
넘치는 우정의 물결 흘러 흘러 푸른 바다로
끓임없는 파도소리 되어
부르고 부르는 목소리 되어
온 세상(世上)에 멀리 멀리 울려 퍼져라

고 박준홍(51) 동문 2012 Green Project Fund Donation

안녕하세요, 서울의대 미주동문회에서 젊은 동문들의 미국 정착을 도모하는 Green Project Committee의 이영인(86)입니다. 1951년 혼란스러웠던 한국에서 무사히 학업을 마치시고 초창기 미주동창회의 주축이 되어 주셨던 선생님의 열정과 공로에 후학으로서 큰 존경의 마음을 간직합니다. 60년이 지난 2011에도 선생님의 후학들이 미국에 와서 의학도의 꿈을 피고자 합니다. 가족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1999년부터 2004년에 졸업한 8명의 동문들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문대욱(73) 회장님, 서인석(73) 동문, 김웅(86) 동문, 조형기(92) 동문과 함께 후보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후학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래는 학술대회에 참석했던 후학들의 감사의 글 들입니다.
Green Project Committee Chair 이영인(86) 드림



안녕하십니까? 2002년 졸업생 곽호중입니다. 우선 고 박준홍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저 같은 후배들에게 여러 동창 선생님들과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코네티컷에서 분자 생물학을 전공하여 박사 과정에 있습니다. 의과대학을 다니던 시기부터 기초의학을 연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인턴을 마친 후 생화학 교실에 석사로 진학 하였고, 석사 졸업 후 공중보건으로서 식약청에 있었습니다.

이후 조금 더 넓은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자 하여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고 지금은 4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 분야에서 질병과 연관되는 생화학적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를 계속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과 유가족님들의 뜻을 세우고 기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문을 위하여 부끄럽지 않고 책임있는 일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호중(2002) 올림

고 박준홍 선배님 가족님,
Georgetown University 에서 Oncology Fellow로 있는 박종철(99)입니다.

선배님의 도움으로 이번 올랜도에서 열리는 동문 학회에 영광스럽게 참석하여 많은 저희 동문 선배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졸업연도는 99년이지만 아직 trainee 이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아 이번에 선배님들의 귀중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matching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 학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신 선배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도움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고 참여할 예정

입니다. 다시한번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 김종오(2004) 드림

선배님 가족님,
저는 2006년도 졸업생 윤정현이라고 합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후 도미하여 지금은 필라델피아에서 전공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아직 수련 중인 햇병아리 후배에게 이렇게 동문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훌륭하신 미국에 와서 막막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빈 적도 없는 대선배님들께서 자신의 일인 것처럼 아낌없이 힘써주시고, 조언을 주셨기에, 연고도 없는 미국에서 수련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미국 도처에 계신 선배님들의 활약을 접할 수 있었고 직접 동문선배님들을 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고 박준홍 선배님 덕분에 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원해주신 만큼, 열심히 선배님들을 직접 뵈고, 고 박준홍 선배님을 비롯하여 선배님들께서 개척하신 길을 사표 삼아 성장하고 후배들을 이끌고 나누는 것이 감사할 운전히 값은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 윤정현(2006) 드림.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대 2002년도 졸업생 안상민입니다. 휴스턴 소재 베일러 의대에서 재활의학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현재 시애틀 워싱턴 주립 대학병원에서 통증의학 전임의 수련을 받고 있습니다. 미주 서울의대 동문 모임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또 경제적인 여유의 부족함으로 인해 그 동안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 박준홍 선배님의 뜻깊은 배려로 수련중인 후배의 참여를 돕기 위해 기금이 마련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이번 모임은 저에게 정말 의미 깊은 만남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저와 같은 길을 먼저 걸으신 여러 선배님을 찾아뵙고 많은 얘기 나누며 그 분들의 살아있는 경험을 배우고 또 미래를 준비 하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될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모임 중 저의 아버지별 되시는 선배님들이 패션쇼와 노래경연 시간을 통해 저마다의 끼를 발산하며 젊고 활기차게 생활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젊은 제가 오히려 고개가 숙여지고 앞으로 더 힘차게 밝게 또 긍정적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각자의 분야에서 자랑스런 서울의대의 동문으로 눈부시게 활약하시고 계신 여러 선배님들을 뵈고 저 또한 동창회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학문에 정진해야겠다는 다짐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서울의대 미주 동창회의 일원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여하며 미약하나마 동창회의 발전에 힘이 되는 후배가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상민(2002) 드림

저는 예과 96학번 2002년도 졸업생 채영광 입니다. 미국에는 공중보건의사를 마치고 2005년도에 와서 Johns Hopkins에서 MBA와 Master of Public Health를 공부하고 의과대학 실험실에서 종양연구도 하였습니다.

2008년도부터 필라델피아 Albert Einstein Medical Center에서 내과 수련을 하였고 2011년부터 휴스턴의 MD Anderson Cancer Center에서 혈액종양 내과 전임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고 박준홍 동문 선배님 가족의 후원으로 이번 기회에 올랜도의 미주 총동창회 학술 모임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미국에 올 생각을 갖게 되고 미국 의사국가고시 시험을 보고 레지던트, 펠로우 지원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각계 각처에서 활약하고 있

는 많은 훌륭한 동문 선배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이번 모임에서 멋진 동문 선배님들을 직접 뵈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학술 모임의 강의를 통해 여러 분야의 최신 지견에 대해 많이 배우고, 또 현재 수련중인 동문들과 선배님들과의 진솔한 질의문답 시간을 통해 신선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미국 각처에 흩어진 동창, 후배들도 함께 만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휴스턴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까운 미래에 저 역시 동창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채영광(2002) 드림

이번 서울의대 동문회 및 컨퍼런스에 참석한 필라델피아에 거주하고 있는 안철현입니다. 저는 2004년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 여러 해 연구를 하고 현재 재활의학과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먼저 훌륭한 강의도 듣고 여러 동문 선배님들을 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장님을 비롯하여 행사를 준비하신 분들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세심한 부분까지 많은 신경을 쓰신것이 느껴졌던 동문회였습니다. 처음 참석하는 미주동문회였지만 모두 가족같이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저와 아내는 내년 동문회도 가능하면 꼭 참석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주고 받았습니다.

선배님들께서 오랫동안 발전시켜오신 동문회를 유지하고 또한 앞으로 오실 후배님들을 위해서 무언가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웠던점은 뽀뽀한 직장스케줄 탓에 전 일정을 함께 하지 못했던 점입니다. 저도 앞으로 모든 일정을 같이 할 수 있는날을 기약해 봅니다. 다시 한번 저희 8명의 전공의들이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미국에서 빛나는 활약을 하고 계시는 수 많은 선배님들을 뵈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안철현(2004) 올림

편집위원회의 회의 초록

이번 4월호 출판 편집모임은 현 문대욱 회장의 참석에 맞춰 정기모임을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

- 날짜: 03/23/2012 6:30 PM / 장소: 장원루 Flushing, NY
- 참석인원: 허선행 위원만 사정에 의해서 불참했다.
- 들어온 원고들의 편집을 마치고 다음 사항에 대해서 토의하고 결의했다.
 1. 시계탑 비용 감소건: 지난 1월 Florida에서 있었던 Scientific Convention의 지역대의원회와 역대 회장의 원탁 토론에서 거론되었다. 그동안의 출판비용과 우송료를 검토하고 다음 두 가지를 결정했다. 첫째, 시계탑의 출판을 12면으로 제한하되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둘째, 그동안 한국 우송을 직접해 오던 것을 서울의대 동창회로 한꺼번에 보내 서울에서 여러 동문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2. 시계탑의 질적 향상: 질의 향상의 정의에 대한 통일된 의견은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교양적인 내용, 동창들의 소식을 잘 알리고 information exchange가 잘 되는 내용. 기행문은 maximum 한 페이지가 넘지 않는 정도로 제약하기로 했다.
 3. 이번호부터는 전문편집인(Mrs. 김병석 59)의 참여와 봉사로 새로운 시도를 해나갈 예정이다.
 4. 새 동창회명부 출판에 대해서 토의는 했으나 이것은 출판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 여느때와 같이 밤 9시반에 편집과 회의를 마쳤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snucmaa@yahoo.com www.snucmaa.us